太上感應篇 三

共五

太上感應篇圖說卷之二目錄

刑官善報

范純仁　王旦　楊旬　錢若水

張慶

刑官惡報

梁統　周興　索元禮　張汝慶

李若水　楊鐸　歐陽遇　李元禮

史官善報

衛仲達

史官惡報

江陰二生

言官善報

林鎬　劉元昌

言官惡報

林機　王翰　杜肅

養民官善報

趙抃　姚忠仁　王珣　張淇

曾櫻　楊諧　馬默　袁了凡

葉夢得　劉矩　祝乾壽　崔廷

養民官惡報

郭崇義　韋公幹　陳潔　宋昇

嚴延年　邵知府　張寶　李緒

梁緯　許某　狄知縣　鄭清臣

黃同知　王通判

范純仁

范純仁知慶州見獄中罪人皆滿公曰何不責保在外判司白曰此輩多屠販竊盜釋之必復累官司矣公曰終當何如曰往往疾斃獄中是亦除民害耳公蹙然曰法不當死在位者必欲殺之豈理耶遂盡呼至庭下戒之曰爾輩爲惡不悛在位者不肯放汝懼爲民害復累官司耳汝等能改過我便放汝衆叩頭曰敢不佩服教令遂釋之歡呼而出轉相告語轉相勸勉是歲犯法者減舊歲之半

범슌인이셔울경쥬의동임ᄒᆞ여옥즁의죄인이가득ᄒᆞᆷ을보고물어왈이죄인을어이쳐결ᄒᆞ여놋치아니ᄒᆞ뇨옥니ᄃᆡ왈이무리모도ᄉᆞ도ᄒᆞ기와도적질ᄒᆞᄂᆞᆫ무리만ᄒᆞᆫ지라노ᄒᆞᆫ즉반ᄃᆞ시ᄯᅩ법의범ᄒᆞ리니ᄃᆞ시관가의근심이될가ᄒᆞᆷ이로소이다공왈연즉필경엇지ᄒᆞᄂᆞᆫ다ᄃᆡ왈가

둔지오릭면죵죵옥즁의셔병들어죽ᄂᆞ니이ᄯᅩᄒᆞᆫ위
민졔ᄒᆞᆷ이라ᄒᆞ거ᄂᆞᆯ공왈법의맛당이죽지아닐
ᄌᆞᆯ관원이되여거어히죽도록ᄒᆞᆷ이〻무ᄉᆞᆷ도리〻요
ᄒᆞ고이에모든죄인을불너경계ᄒᆞ여왈너의무리악
을ᄃᆞᆺ고〻치지아니ᄒᆞ미관원이즐겨노치아니ᄒᆞᆷ은ᄃᆞ시
빅셩을해ᄒᆞ여ᄃᆞ시관가의ᄌᆞ심이될가두림이니너희
능히허물을고칠진ᄃᆡ맛당이너희ᄅᆞᆯ노하보니리라
ᄒᆞ니모든죄인이고두ᄒᆞ여ᄃᆞ시죄짓지아니ᄒᆞᆷ을ᄃᆞ짐ᄒᆞ
거ᄂᆞᆯ드ᄃᆞ여다노ᄒᆞ니죄인등이즐겨부르지〻며나가고셔
로경계ᄒᆞ여ᄃᆞ시범법지아니ᄒᆞ니이ᄒᆞ의범죄ᄒᆞᆫ지
편쇄여셔반이못ᄒᆞ더라

王旦

王文正公旦初釋褐知江陵獄有一囚罪當死公求出之一夕不寐至五鼓忽然得路卽趨出則吏卒皆環侍驚語相向公怪問之曰値更者方擊五鼓忽聞空中有聲曰起公將出矣方起整衣不意果出公默然心契因引囚出讞竟爲平反

왕문졍공됴ᄂᆞᆫ 송나라 저샹이라 쳐음의 강능 원을 ᄒᆞ엿더니 옥의 ᄒᆞᆫ 죄인이 잇시되 죽기로 결쳐ᄒᆞᆫ 비라 공이 그 죄를 의심ᄒᆞ여 ᄉᆞᆯ오고져 ᄒᆞ되 묘리 업ᄉᆞᆷ을 근심ᄒᆞ더니 일〃은 밤을 당ᄒᆞ여 자지 아니코 ᄉᆡᆼ각ᄒᆞ다가 오경의 니르러 홀연이 ᄉᆞᆯ닐 길을 엇은지라 ᄉᆡ기를 기ᄃᆞ리지 못ᄒᆞ여 공당으로 나오니 발셔 니졸이 못아 뎨령ᄒᆞ엿고 져마다 놀나 셔로 말ᄒᆞᄂᆞᆫ지라 공이 고이

히녁여그연고ᄅᆞᆯ무르니ᄃᆡ왈앗가슌경준시오경을
치노라ᄒᆞ니홀연공즁의셔웨여왈셜니모다니러나
라공이나오시ᄂᆞ니라ᄒᆞ거ᄂᆞᆯ놀나니러나이에모혀ᄉᆞ더
니불의에과연공이나오시패이라ᄒᆞ거ᄂᆞᆯ공이또ᄒᆞᆫ그
ᄆᆞ음의암합ᄒᆞᆷ을이상이녁이고그옥슈ᄅᆞᆯ올녀ᄌᆞ셰
히무ᄅᆞ니과연원억ᄒᆞᆫ지라ᄃᆞᄃᆡ여평졍결쳐ᄒᆞ니
라

楊旬

楊旬參夔州推司處心正直積累陰功有子入試旬夢神
告曰汝陰德有感子必貴須改名楊椿果中第六次年會
試椿自夢神曰題是行王道而王試日果如其夢中九十
六名及殿試奪天下都魁夔州使君請旬賜坐令旬解職
旬乃告曰念旬平日仰托二天之庇奉公四十年家無資
產惟留下三個慳囊乞台旨取來當廳開看第一個有三
十九文當三錢第二個有四千餘文折二錢第三個計萬
個小錢使君不知所以旬曰每詳讞罪囚但遇吏胥入輕
作重有從死罪減爲流罪者卽投一當三錢有從流罪減
爲杖罪者卽投折二錢有從杖罪改放者便投一小錢今
日旬男奪魁皆平日行善所致也敢捨公門而自安逸哉
양슌이기쥬틔슈의형방아젼이되여ᄆᆞ음가지기ᄅᆞᆯ졍

직히ᄒᆞ고음덕ᄊᆞ흠을됴하ᄒᆞ더니그아ᄃᆞᆯ이과거의갈ᄉᆡ
ᄭᅮᆷ의ᄒᆞᆫ신령이닐너왈네음덕의감동ᄒᆞᆷ이잇셔아ᄃᆞᆯ
이반ᄃᆞ시ᄃᆡ귀ᄒᆞᆯ지니맛당이일홈을곳쳐양츙이라ᄒᆞ
여쥬라ᄒᆞ더니과연그초시의참방ᄒᆞ고ᄎᆞ년회시〻의양
츙의ᄭᅮᆷ의ᄯᅩ신령이글졔를미리이르더니ᄯᅩᄒᆞᆫ참방ᄒᆞ
고밋젼시출방ᄒᆞ미뎐하도장원급졔를ᄒᆞ엿ᄉᆞ더라기
쥬ᄃᆡ쉬슌을쳥ᄒᆞ여좌를쥬고ᄅᆡ하ᄒᆞ니슌이공ᄒᆞ여왈
ᄉᆡᆼ각건ᄃᆡ슌이평일의하ᄂᆞᆯ의도으심을닙ᄉᆞ와아문의
봉공ᄒᆞ온지〻금ᄉᆞ십여년의집이가난ᄒᆞ여남은지산
이업ᄉᆞ오ᄃᆡ오직셰낫쥬머니잇ᄉᆞ오니이졔가히가져와
보ᄉᆞ이다ᄒᆞ고집의사ᄅᆞᆷ을보ᄂᆡ여셰쥬머니를가져오라
ᄒᆞ여〻러보니ᄒᆞᆫ쥬머니의ᄂᆞᆫ큰돈삼십구ᄆᆡ잇고ᄒᆞᆫ쥬

머니의ᄂᆞᆫ즁돈ᄉᆞ쳔여ᄀᆡ 잇고ᄒᆞᆫ쥬머니의ᄂᆞᆫ져근돈만
여ᄀᆡ잇ᄂᆞᆫ지라ᄒᆞ쉬그연고ᄅᆞᆯ모ᄅᆞ니슌왈이ᄂᆞᆫᄆᆡ양
옥슈의죄ᄅᆞᆯ졍ᄒᆞ오ᄆᆡ혹각박ᄒᆞᆫ아젼의슈단을로
경ᄒᆞᆫ죄ᄅᆞᆯ즁히지우거든너힘ᄡᅥ가ᄇᆡ얍게ᄒᆞ오ᄆᆡ죡
을죄ᄅᆞᆯ고쳐귀향가게ᄒᆞ면큰돈ᄒᆞ나ᄒᆞᆯ너코귀향갈죄ᄅᆞᆯ
고쳐틔쟝ᄒᆞ게ᄒᆞ면즁돈ᄒᆞ나ᄒᆞᆯ너코틔쟝죄ᄅᆞᆯ고쳐
ᄇᆡᆨ방ᄒᆞ게ᄒᆞ면져근돈ᄒᆞ나ᄒᆞᆯ너흐니이ᄂᆞᆫ곳셰가지
돈넛ᄂᆞᆫ쥬머니라금일아ᄃᆞᆯ의쟝원이도시평일착ᄒᆞᆫ
널갑흠이니엇지범연타ᄒᆞ리오ᄒᆞ더라

錢若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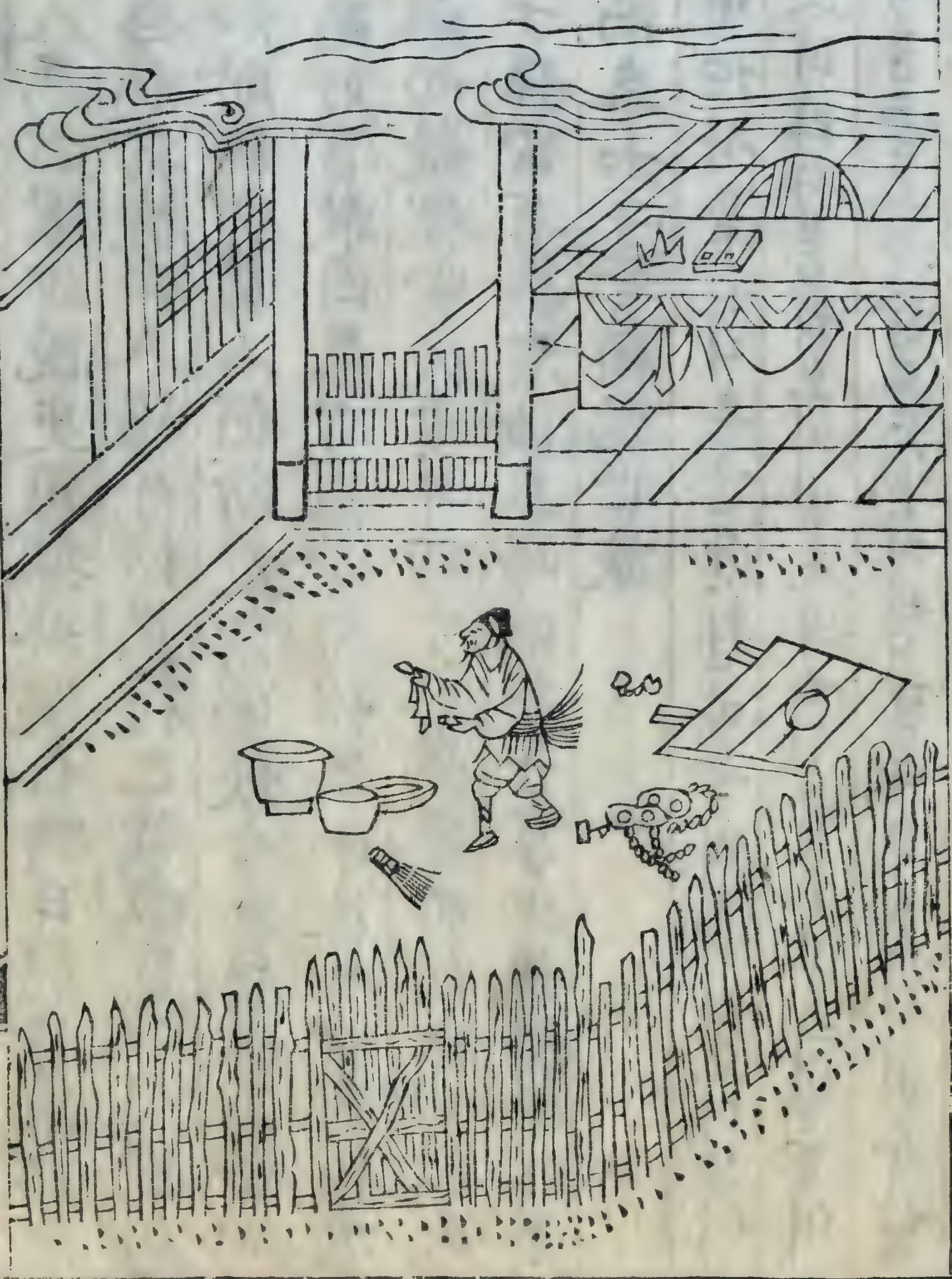
錢若水爲同州推官有富民失女奴父母訴於州委之錄參舊與錄參隙遂申核富民父子共殺投屍水中富民已誣服獨若水遲疑錄參指廳詬曰汝得賄欲出之耶若水笑曰父子皆坐重辟豈不容某熟察又越旬不決知州亦有言若水終不奪一日若水詣州所屏人告曰其女奴之父母實羨富民之家財因其無隙可乘遂匿其女而傾陷之今得之矣知州遂釋富民父子富民詣若水謝閉門不納富民遶垣而哭知州欲以此奏之朝廷若水辭曰某初心止圖拔冤非圖爵賞且朝廷聞之如錄參何知州嘆服太宗聞其事擢知制誥進樞使歷禮部尚書後無病而終

젼약슈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동쥬츄관이 되엿더니 그ᄯᅢ 부민이 잇셔 ᄒᆞᆫ 계집죵을 일흔지라 죵의 부뫼 고을의 소지

ᄒᆞ엿거ᄂᆞᆯ 지쥬 녹참의게 맛져 ᄉᆞ획ᄒᆞ라 ᄒᆞ니 녹참이 본
디 그 부민과 혐의 잇ᄂᆞᆫ지라 드듸여 부민의 부ᄌᆞ를 잡으되
그 죵을 쥭여 물속의 감초다 ᄒᆞ여 궁극히 져쥬니 부민이 형
벌을 견듸지 못ᄒᆞ여 이의 이ᄆᆡ 이 승복ᄒᆞᆫ지라 약쉬 그 옥ᄉᆞ
ᄅᆞᆯ 의심ᄒᆞ여 ᄃᆞ시 ᄉᆞᆯ피려 ᄒᆞᆫ듸 녹참이 쳥샹을 가ᄅᆞ쳐 약
슈를 ᄭᅮ지져 왈 네 회뢰를 밧고 부민을 노흐려 ᄒᆞᄂᆞᆫ다 ᄒᆞ니
약쉬 웃고 왈 이졔 사ᄅᆞᆷ의 부ᄌᆞᄒᆞᆷᄭᅴ 쥭을 죄의 드럿거ᄂᆞᆯ
엇지 ᄌᆞ셰히 ᄉᆞᆯ피지 아니리요 ᄒᆞ더라 ᄯᅩ 일슌이 지ᄂᆞ미 지쥬 ᄯᅩ
ᄒᆞᆫ 결옥ᄒᆞ라 ᄒᆞᄂᆞᆫ 말이 잇ᄂᆞᆫ지라 약쉬 마ᄎᆞᆷ 년ᄃᆞᆺ지 아니ᄒᆞ、
더니 알ᄋᆞᆫ 약쉬 지쥬의게 나아가 사ᄅᆞᆷ을 믈니고 ᄒᆞ여 왈 그
죵의 부뫼 실노 급부민의 ᄌᆡ물을 탐ᄒᆞ여 모히코져 ᄒᆞᆷ으로
졔ᄯᆞᆯ을 감초고 옥ᄉᆞ를 니루미라 이졔 그 ᄯᆞᆯ을 ᄎᆞᄌᆞ시니

옥경을가지로소이다ᄒᆞ니지쥐그말을듯고크게긔특이
녀겨즉시부민의부ᄎᆞ를노코이날노ᄲᅧ조쳥의알외더
ᄒᆞᆫ듸야쉬ᄉᆞ양ᄒᆞ여왈나의처음ᄆᆞ음이다만사ᄅᆞᆷ의
의미ᄒᆞᆫ죄를벗겨원억ᄒᆞᆫ듸ᄉᆡᆼ지우지말고져ᄒᆞᆷ이니작
상을위ᄒᆞᆫ비아니요ᄯᅩᄒᆞᆫ조령이〻날을드르면녹참의죄
만흘지나엇지블가ᄒᆞ리아니리오ᄒᆞ니지쥐더옥탄복ᄒᆞ
더라ᄐᆡ종이드ᄅᆞ시고긔특이녀기샤츄밀ᄉᆞ를ᄒᆞ이시고
그후벼ᄉᆞᆯ이녜부샹셔의니르럿더라

張慶



張慶汴人爲右軍巡院吏司獄矜愼自持日躬持箒滌暑
月尤勤每戒其徒曰人罹于法豈得已哉我輩以司獄爲
職若不知所恤則罪人何所赴訴耶飮食湯藥臥具必加
精潔嘗爲好言敎囚果有罪當自招無誣良善以重己過
故不拷訊而疑獄常決妻年四十八病歿神語之曰汝夫
陰德大子孫當有興者汝且歸明年子享生後慶年八十
二無病而卒六子皆顯號世族

쟝경은변ㅅ사ᄅᆞᆷ이니우군슌원마을의옥가ᄋᆞ마ᄂᆞᆫ아
젼이되엿더라사ᄅᆞᆷ되오미범ᄉᆞ의근신ᄒᆞ고부즈런ᄒᆞ여
날마다뷔ᄅᆞᆯ들고옥중을쓸어졍결토록ᄒᆞᆯ서비록셩
ᄒᆞᆫ더위라도더옥셩근ᄒᆞ더라ᄆᆡ양동뇨ᄅᆞᆯ경계ᄒᆞ여왈사
ᄅᆞᆷ이법의걸니미마지못ᄒᆞ여가도며ᄃᆞᄉᆞ릴지언졍우리

무리옥가으마ᄂᆞᆫ직칙이잇ᄉᆞ나엇지무휼티아니리오만일
우리잇셔고호티아니ᄒᆞ면죄인들이어ᄃᆡ가하소언ᄒᆞ리
요ᄒᆞ고음식과탕약과와구ᄅᆞᆯ졍ᄒᆞ고편토록ᄒᆞ여죄인
을쥬교상히도ᄒᆞᆫ말노ᄡᅥ죄인을ᄀᆞᄅᆞ치되과연죄잇거
ᄃᆞᆫ스ᄉᆞ로복초ᄒᆞᆯ거시오낭셜ᄒᆞᆫ사름과의미ᄒᆞᆫ사름을무
소ᄒᆞ여졔몸의즁ᄒᆞᆫ허물이되지아니케ᄒᆞ라ᄒᆞ니이러
므로모든죄인이감복ᄒᆞ여괴로이치지아니ᄒᆞ되의심된옥
ᄉᆞᄅᆞᆯ미양공평이결단ᄒᆞ더라그쳐의나히ᄉᆞ십팔이오
ᄯᅩᄒᆞᆫ무ᄌᆞᄒᆞ더니일〻은병들어쥭은지라그혼이명부의
드러가니신령이잇셔닐너왈네지아비음덕이셰샹의
큰지라네ᄌᆞ손의맛당이흥ᄒᆞᆯ지이실거시나녀ᄂᆞᆫ가히도
라가라명년의맛당이싱ᄌᆞᄒᆞ리라ᄒᆞ거ᄂᆞᆯ드ᄃᆡ여회

셩ᄒᆞ여이말을니르고부뷔셔로괴이히녁이더니그후
의년ᄒᆞ여뉵ᄌᆞ를나코경은나히팔십이의병업시
졸ᄒᆞ고그후뉵지모다부귀현달ᄒᆞ여셰ᄃᆡ거족이되
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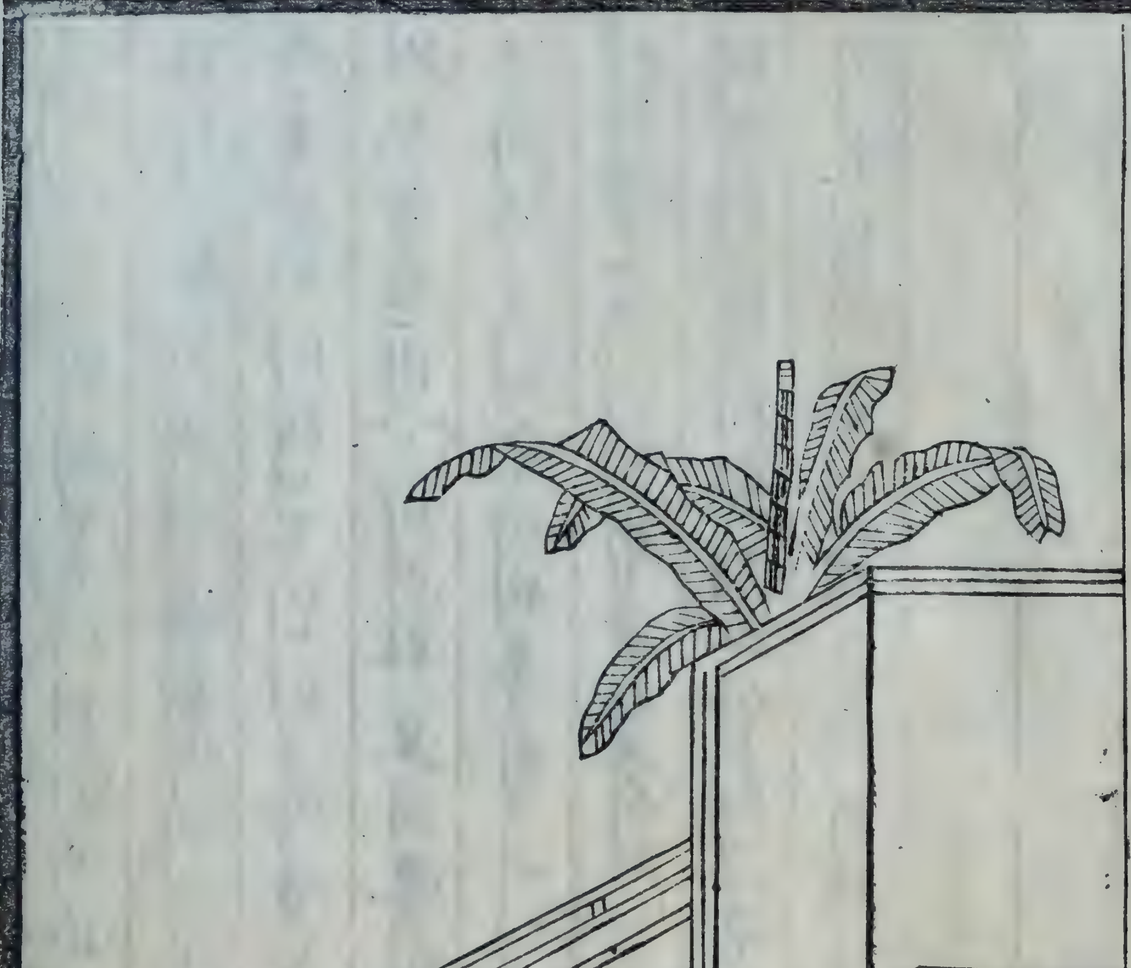
梁統

漢梁統上言乞增重法律當時不從其議後統忽夢神人告曰雖幸朝廷不從爾言陰府已錄爾過爾今欲以刑毒人將來爾子孫皆被刑死獲罪于天無所禱也後統二子皆以非命死至冀皆滅族此刑報也冒起宗曰梁氏增刑議雖未汲而擧念已墮惡業是以陽誅陰譴禍及子孫夫人擧念可不愼與

한나라 냥통이 표를 올녀 형법을 즁히 ᄒᆞ기ᄅᆞᆯ 쳥ᄒᆞ니 조졍이 그 의논을 좃지 아니ᄒᆞ엿더라 그 후 통의 ᄭᅮᆷ의 홀연 신인이 잇셔 닐너 왈 네 조졍의 쳥ᄒᆞ여 형벌과 법을 즁ᄒᆞ게 ᄒᆞ라 ᄒᆞ미 비록 조졍이 좃지 아니ᄒᆞ엿시나 명부의 이믜 네 죄ᄅᆞᆯ 긔록ᄒᆞ엿ᄂᆞᆫ지라 네 이제 ᄆᆞ음을 독히 ᄒᆞ여 형벌노ᄡᅥ 사ᄅᆞᆷ을 ᄒᆡᄒᆞ고져 ᄒᆞ니 이러므로 네 ᄌᆞ손이 모다 형벌의 죽을 거시요

이믜하ᄂᆞᆯ의죄를어더시니빌어도유익지아니리라ᄒᆞ
더니그후의과연동의두아ᄃᆞᆯ이다비명의죽고ᄯᅩ동의
ᄌᆞ손낭긔의게니르러멸족ᄒᆞᄂᆞᆫ화를당ᄒᆞ니이ᄂᆞᆫ형벌
의보응을밧ᄋᆞ미러라 모괴죵이ᄀᆞᆯ오ᄃᆡ 낭시의형벌더
ᄒᆞ자ᄒᆞᄂᆞᆫ의논이비록ᄒᆡᆼ치아니ᄒᆞ엿시나ᄆᆞ음먹으미
이믜몹슬 긔의범ᄒᆞ엿시니이러므로가만ᄒᆞᆫ최책망과드
러ᄂᆞᆫ형벌이잇셔그앙홰ᄌᆞ손의게미ᄎᆞ시니ᄃᆡ져사ᄅᆞᆷ이
ᄆᆞ음먹기를 엇지ᄉᆞᆷ가지아니ᄒᆞ리요

周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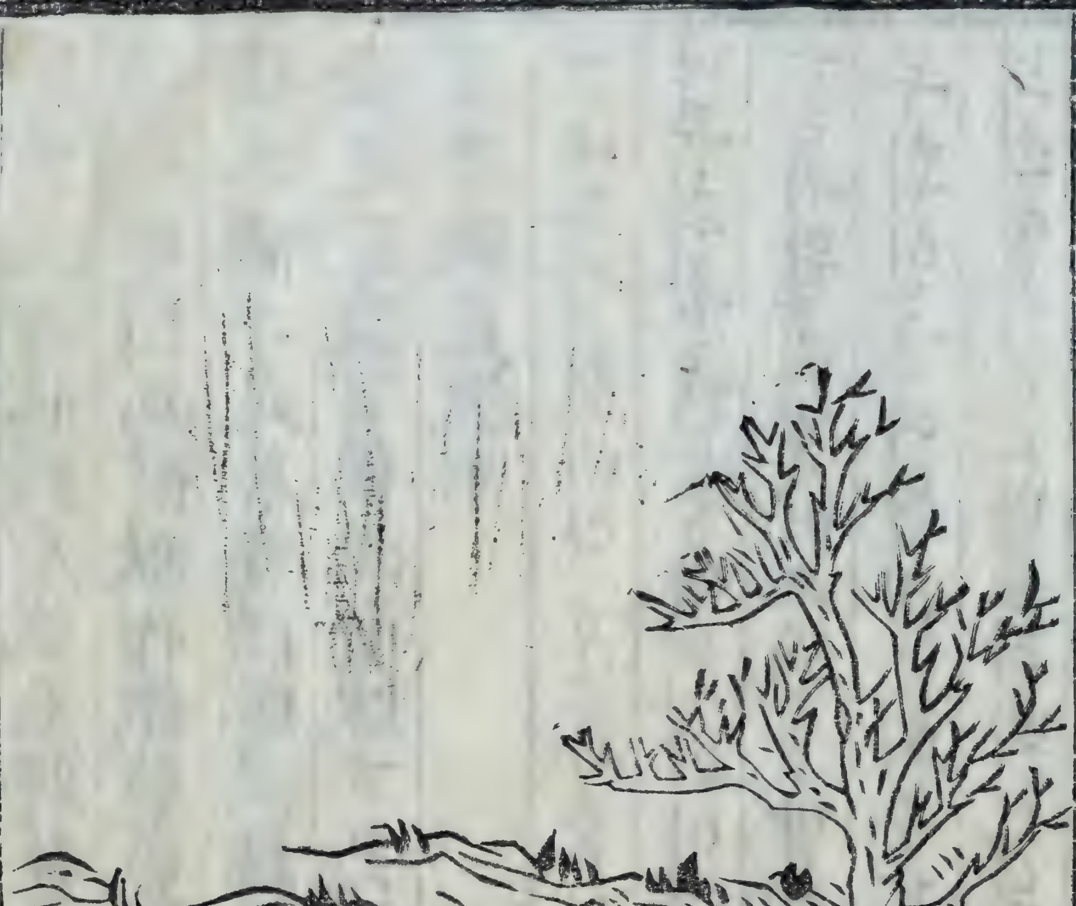


唐武后時政尚嚴酷周興希旨暴刻殘酷殺人甚多或告興與丘神勣通謀武后命來俊臣鞫之俊臣與興方推事對食謂興曰囚多不服當爲何法興曰此易易耳取大甕以炭四周炙之令囚入中何事不服俊臣乃索大甕火圍如興法因起謂興曰有內狀推兄請兄入甕興惶恐叩頭服罪論死流嶺南中道爲怨家所殺

당나라무후ᄯᅢ의졍ᄉᆞ엄ᄒᆞ고혹독ᄒᆞᆫ지라그ᄯᅢ의쥬흥이라ᄒᆞᄂᆞᆫ신히무후의ᄯᅳᆺ을마초와ᄉᆞ오납고각박ᄒᆞ며잔인ᄒᆞ고혹독ᄒᆞ여사ᄅᆞᆷ쥭이믈됴하ᄒᆞ더니사ᄅᆞᆷ이ᄌᆞ셔쥬흥이모반ᄒᆞ다고ᄒᆞ거ᄂᆞᆯ무휘이의ᄂᆡ쥰신이라ᄒᆞᄂᆞᆫ법관을명ᄒᆞ여쥬흥을국문ᄒᆞ라ᄒᆞ니쥰신이맛ᄎᆞᆷ쥬흥과동관이라더부러좌긔ᄒᆞ여죄인을츄문ᄒᆞ며ᄀᆞ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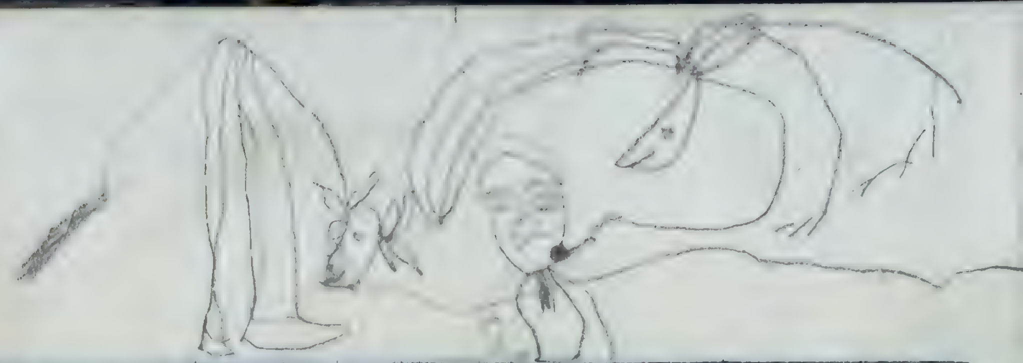
치밥먹더니쥰신이쥬흥ᄃᆞ려무러왈죄인이미양승복
지아니ᄒᆞ니무ᄉᆞᆫ법을ᄒᆞ여야됴흘고ᄒᆞ니흥이답왈이
아조쉬운닐이라큰독을취ᄒᆞ여노코숫츠로써ᄉᆞ면을에
우고불을픠우면그독이달흘자나죄인을잡아그독속
의너흐면무ᄉᆞᆫ닐을항복지아니리요ᄒᆞ니쥰신이〻의
독을가져오라ᄒᆞ여쥬흥의니르던ᄃᆡ로불을픠우고인
ᄒᆞ여니러나쥬흥ᄃᆞ려닐너왈군명이〻셔형을츄문ᄒᆞ
라ᄒᆞ엿시니쳥컨ᄃᆡ형은이독속의들나ᄒᆞ니쥬흥이
겁ᄒᆞ고두려머리를조아항복ᄒᆞ니논죄ᄒᆞ미맛당이
쥭을지라감ᄉᆞ졍비ᄒᆞ여영남으로가더니필경혐의
징은사ᄅᆞᆷ의게쥭으니라

索元禮



唐索元禮性殘虐武后將除異己者元禮揣知上旨卽上書告變因爲制獄作鐵籠羣囚首加以楔或至腦裂死又橫木關手足展轉晒曝或縳囚梁柱縋石於頭訊一囚又牽連至數百後坐受賕下吏訊之不服曰取公鐵籠來元禮乃服死獄中

당나라삭원녜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셩품이잔인ᄒᆞ고포학ᄒᆞ더니무휘장ᄎᆞᆺ그ᄆᆞ음의맛지아니ᄒᆞᄂᆞᆫ신하ᄅᆞᆯ덜어ᄇᆞ리랴ᄒᆞᆯ시원녜발셔그ᄯᅳᆺ을알고즉시글을올녀고변ᄒᆞ니무휘인ᄒᆞ여원녜로ᄡᅥ그옥ᄉᆞᄅᆞᆯᄃᆞᄉᆞ리게ᄒᆞ니원녜이의쇠얼기ᄅᆞᆯ만드러죄인의머리의ᄡᅴ우고그ᄅᆞᆷ의ᄡᅬ아기ᄅᆞᆯ쳐죄오니혹두골이ᄆᆡ여져죽ᄂᆞᆫ지잇ᄂᆞᆫ지라ᄯᅩ큰남그로차고ᄅᆞᆯ만드러슈족을잠으고구을녀포ᄀᆞ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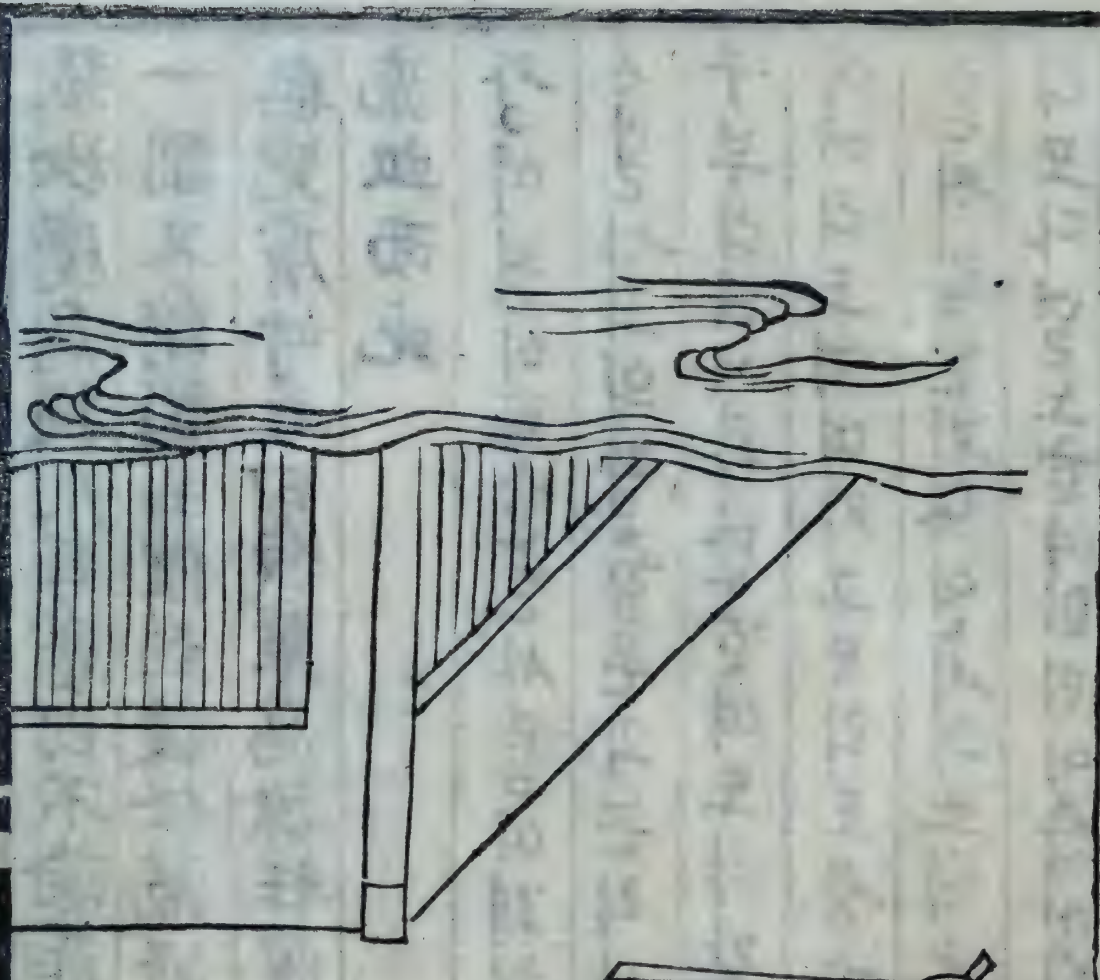
쐬조이며혹죄인을기동의결박ᄒᆞ고머리의무거운돌을달아이러ᄐᆞᆺ악형ᄒᆞ며ᄒᆞᆫ죄인을ᄃᆞᄉᆞ리미슈ᄇᆡᆨ인이연좌ᄒᆞᆫ노지라그후원녜회뢰밧은죄로옥의ᄂᆞ리워져츄문ᄒᆞᆯ시즐겨항복지아니ᄒᆞ거ᄂᆞᆯ옥관이ᄀᆞᆯᄋᆞ되그ᄃᆡ의쇠열기를가져오라ᄒᆞ니원녜그제야승복ᄒᆞ고옥즁의셔쥭으니라

張汝慶

張汝慶爲提刑每審囚不論罪犯輕重諸刑借施名曰打一副又謂閻王催到後任滿歸夜夢數百人破頭折足身無完膚呼之曰我輩爲汝枉殺當還我命至家旬日七竅流血而死

장여경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졔형벼ᄉᆞᆯ을ᄒᆞ여죄인을ᄃᆞᄉᆞ릴ᄉᆡ죄의경즁을의논치아니ᄒᆞ고모든형벌을마구부리더니과만ᄒᆞ여도라갈시그밤ᄭᅮᆷ의슈ᄇᆡᆨ여인이머리도ᄭᆡ여지고ᄃᆞ리도상ᄒᆞ고팔도부러져ᄒᆞ나도셩ᄒᆞᆫ자업ᄂᆞᆫ지라일시의소ᄅᆡᄒᆞ여부ᄅᆞ지져왈우리무리모다널노ᄒᆞ여의미이죽엇시니우리목숨을도로달나ᄒᆞ고못치기를마지아니ᄒᆞ더니집의도라간지겨우열흘은되여칠규로피를흘니고죽으니라

李若水



李若水爲淮南司理時有刼賊五人事敗繫獄言與僧人
自成一黨五人已戮僧方追到言實未嘗同盜若水堅執
賊語夜以溼紙餬僧口鼻壓以囊須臾臍腹裂月餘獄吏
李能無故大叫和尚不干我事特司理驅使耳言訖而死
明日推司劉元亦暴卒又明日若水小腹絞痛號呼卒又
明日知軍孫誥判官周禹亦皆暴卒後若水一門死無遺
類

니약슈ᄂᆞᆫ회남ᄉᆞ리벼ᄉᆞᆯ을ᄒᆞ여셔의강도ᄃᆞ섯ᄉᆞᆯ잡으니
강되말ᄒᆞ되일즉ᄒᆞᆫ즁으로더부러ᄒᆞᆫ당이되엿다ᄒᆞ더
니그ᄃᆞ섯도적을이믜죽인후그즁이비로소잡혀와ᄉᆞ건을
위엄을베퍼미이져 쥬나그즁이실노이믜ᄒᆞᆫ지라 만단으
로원통ᄒᆞᆷ을고ᄒᆞ되약쉬마ᄎᆞᆷᄂᆡ그도적의구초를올

ᄒᆞᆫ쥴노젼집ᄒᆞ여드듸여형벌을엄히ᄒᆞᆯ시밤의져준
조희로ᄡᅥ그즁의닙과코ᄅᆞᆯ봉ᄒᆞ여ᄇᆞ로고ᄯᅩ쥬머니ᄅᆞᆯ지
어흙과돌을만히너허비ᄅᆞᆯ눌으니비가족이터져
쥭어더라그후월여의그옥아젼나릉이홀연소리질
너왈나ᄂᆞᆫ화상과간셥홈이아니라특별이ᄉᆞ리의분
부로구츅ᄒᆞ여시긴비라ᄒᆞ고말ᄋᆞᆯ맛ᄎᆞ며쥭고그잇ᄐᆞᆫ
날옥츄ᄉᆞᄒᆞᄂᆞᆫ뉴원이ᄯᅩᄒᆞᆫ폭ᄉᆞᄒᆞ고ᄯᅩ그이ᄐᆞᆫ날약
쉬홀연복통이급ᄒᆞ여소리지르며쥭고ᄯᅩ그고을지군손
고와판관쥬위다폭ᄉᆞᄒᆞ고그후약슈의일문이몰ᄉᆞᄒᆞ
여ᄒᆞᆫ나토남으니업더라

楊鐸

明楊鐸嘉興人舉庚戌進士授吉安推官生平陰鷙多以密謀陷致人死又性兇暴斃杖下者極多嘗白晝坐堂見羣鬼索命後病歸每為羣鬼所嬲病日甚已死復甦家人欣幸鐸曰否否陰司遣暫還示顯報耳冤對滿堂亟供酒食多予楮錢家人從之方設酒饌於庭中屠兒倪鐸酗而過之詬曰此何為也悉取啖焉羣鬼怒謂楊曰姑緩子而以倪鐸往楊喜謂倪且代已令人往視則倪以腹痛暴卒矣肉未寒也楊即以十金授其家命納棺隨火之乃倪實為羣鬼所攝法不當死魂歸而屍已灰同羣鬼作厲於楊家爭喫其肉拔其鬚潑其面目周身潰爛而死時鄰適有新死者倪鐸附其屍蹶然起立奔至楊家大呼曰我擊殺其少子以抵焚屍之報乃趨入內踣其少子屍遂仆地遠

近相聞無不驚怖

명나라양탁은가흥사ᄅᆞᆷ이라일즉진ᄉᆞᄒᆞ여길안고을
츄관벼ᄉᆞᆯ을ᄒᆞ엿더니평셩의음특ᄒᆞ여가만ᄒᆞᆫᄢᅴ로사
ᄅᆞᆷ을모히ᄒᆞ여죽을ᄯᅴ섀지우기ᄅᆞᆯ만히ᄒᆞ고ᄯᅩ셩품이
흉포ᄒᆞ여사ᄅᆞᆷ을ᄃᆞᆺ리미그쟝하의죽은지무슈ᄒᆞ더라
일ᄉᆞ은당샹의안졋더니빅쥬의뭇귀신이ᄂᆞ라드러목
슘을달나ᄒᆞᄂᆞᆫ지라인ᄒᆞ여병드러벼ᄉᆞᆯ을갈고도
라와ᄉᆞ더니날마ᄃᆞ여러귀신의보ᄎᆡ이믈밧아병이날로
심ᄒᆞ여죽엇더라죽은지오ᄅᆡ지아니ᄒᆞ여홀연ᄃᆞ시ᄭᆡ여
나ᄂᆡ집사ᄅᆞᆷ이깃부고다힝이녁여셔로치하ᄒᆞ거ᄂᆞᆯ탁왈
ᄂᆡ이졔회ᄉᆡᆼᄒᆞᆷ이아니라명ᄉᆞ의셔날을잠간도로ᄂᆡ
여보ᄂᆡ여그갑흠밧음을뵈려ᄒᆞᆷ이라이졔원억ᄒᆞᆫ귀

신이ᄃᆡ득되여당샹의가득ᄒᆞ여ᄉᆞ시나급히쥬식과지쳔을만히갓초아쥬라ᄒᆞᆫᄃᆡ가즁사ᄅᆞᆷ이그말을좃ᄎᆞ즉시쥬찬을만히장만ᄒᆞ여ᄠᅳᆯ가온ᄃᆡ버리더니맛참동네의빅졍질ᄒᆞᄂᆞᆫ예탁이라ᄒᆞᄂᆞᆫ쟈잇셔슐을취ᄒᆞ고드러와이거동을보고소ᄅᆡ질너왈이쥬식은엇지ᄒᆞᆫ것고ᄒᆞ며ᄉᆞᄉᆞ로거두어먹으니뭇귀신이노ᄒᆞ여양탁드려닐너왈아직그ᄃᆡ를멈츄고예탁을잡아가리라ᄒᆞ니양탁이〻말을듯고혜아리되ᄂᆡ몸되신의예탁을잡아간다ᄒᆞ여가장깃거ᄒᆞ며사ᄅᆞᆷ을보ᄂᆡ여예탁의집의가본즉예탁이복통으로곡ᄉᆞᄒᆞ여몸이오히려식지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양탁이즉시십금으로ᄡᅥ예가의집사ᄅᆞᆷ을쥬어관곽을가초아입관ᄒᆞ고즉시소화ᄒᆞ여그흔젹을업시ᄒᆞ엿ᄉ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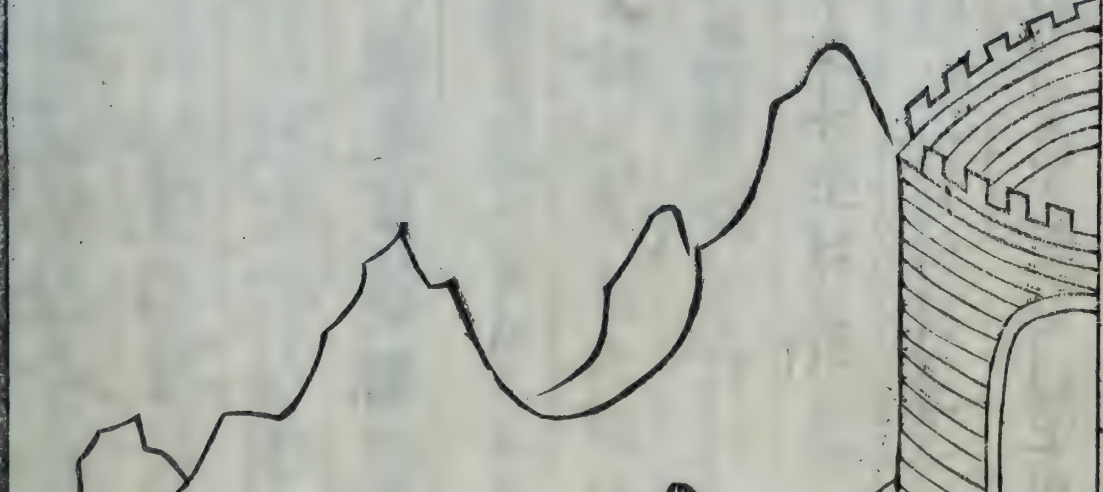
더라이ᄯᅢ예탁이모든귀신의게잡ᄒᆡ여갓시나기실은맛
당이죽을비아니라그혼이노ᄒᆡ여도라오니쳐의시신이발
ᄡᅧ찬지되엿ᄂᆞᆫ지라ᄒᆞᆯ일업서모든귀신으로더부러ᄒᆞᆫ
가지로양가의작난ᄒᆞᆯ시양탁의게ᄃᆞ라들어ᄃᆞ토아그
고기를너ᄒᆞᆯ며슈발을믜듯으며눈을질너셔둥구치
며ᄂᆞᆺ출헐어상ᄒᆡ오니혼신이후란ᄒᆞ여필경죽으
니라이ᄯᅢ의니웃의서로죽은사ᄅᆞᆷ이잇더니예탁의혼
이그시체의붓허닐어나ᄇᆞ로양가의집의드려가더호왈
너맛당이네아ᄃᆞᆯ을죽여나시신의불터온원슈를갑ᄒᆞ
리라ᄒᆞ고이의안ᄒᆞᆯ로드리ᄃᆞ라양탁의어린아ᄃᆞᆯ을발
노박ᄎᆞ죽이고그시체ᄯᅩᄒᆞᆫ업더져느러지니원군의ᄃᆞᆺᄂᆞᆫ저
놀나지아니리업더라

歐陽遇

歐陽遇判大理寺有標陽縣令余紹卿坐事繫獄罪不當死而遇呈以死人皆稱冤自後行住坐臥卽見紹卿遂至廬山九天採訪使者觀設壇解謝初夜卽見紹卿在側明旦投心詞俯伏間被數鬼擒擲殿下血流被體而死

구양위 대리시의 벼슬을 ᄒᆞ엿더니 표양현령 여소경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셔 옥ᄉᆞ의 드러시니 기실은 죽을 죄 아니어ᄂᆞᆯ 구양위 ᄉᆞ죄로 알외여 죽이니 모다 원통타 니ᄅᆞ더라 그후의 안ᄌᆞ나 누으나 소경의 혼이 눈 알ᄑᆡ 뵈ᄂᆞᆫ지라 ᄒᆞᆯ일업셔 녀산 구텬 도관의 나아가 제 올녀 긔도ᄒᆞᆯ셰 초야의 보니 소경이 곳 겻ᄒᆡ 잇ᄂᆞᆫ지라 날이 실ᄯᅧ의 츅ᄉᆞᄒᆞ며 업ᄃᆞ렷더니 문득 두어 귀신이 우ᄅᆞᆯ 잡아 뎐아ᄅᆡ로 ᄂᆞ리치니 원몸의 피ᄅᆞᆯ 흘니고 죽으니라

李元禮



福淸李元禮爲龍溪簿攝尉事獲强盜六人在法七人則應改京秩李命弓兵捘平民以充數皆論死李遂轉承務郎恒見冤死之民立前及調官泉州東裝出城鬼隨之不去夜宿龍山暴死

복쳥니원녜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룡계쥬부ᄅᆞᆯᄒᆞ여그고을날을셔ᄂᆞᆫ소리ᄅᆞᆯ서맛ᄎᆞᆷ강도여ᄉᆞᆺ사ᄅᆞᆷ을잡으니그ᄯᅢ법의도적닐곱을잡으면경직으로승품ᄒᆞᄂᆞᆫ비라이에냥민ᄒᆞ나ᄒᆞᆯ춍슈ᄒᆞ여ᄒᆞᆷᄭᅴ쥭이고인ᄒᆞ여승무랑벼ᄉᆞᆯ을ᄒᆞ엿더니그후로죵죵그원통이쥭은사ᄅᆞᆷ이압ᄒᆡ뵈ᄂᆞᆫ지라밋벼ᄉᆞᆯ을올마쳔쥬ᄯᅡᄒᆞ로갈시셩밧그로나가니그귀신이ᄯᅩᄒᆞᆫ뒤ᄅᆞᆯᄯᆞ로며물너가지아니ᄒᆞ더니원녜형ᄒᆞ여룡산ᄯᅡ희니ᄅᆞ러급히쥭으니라

衛仲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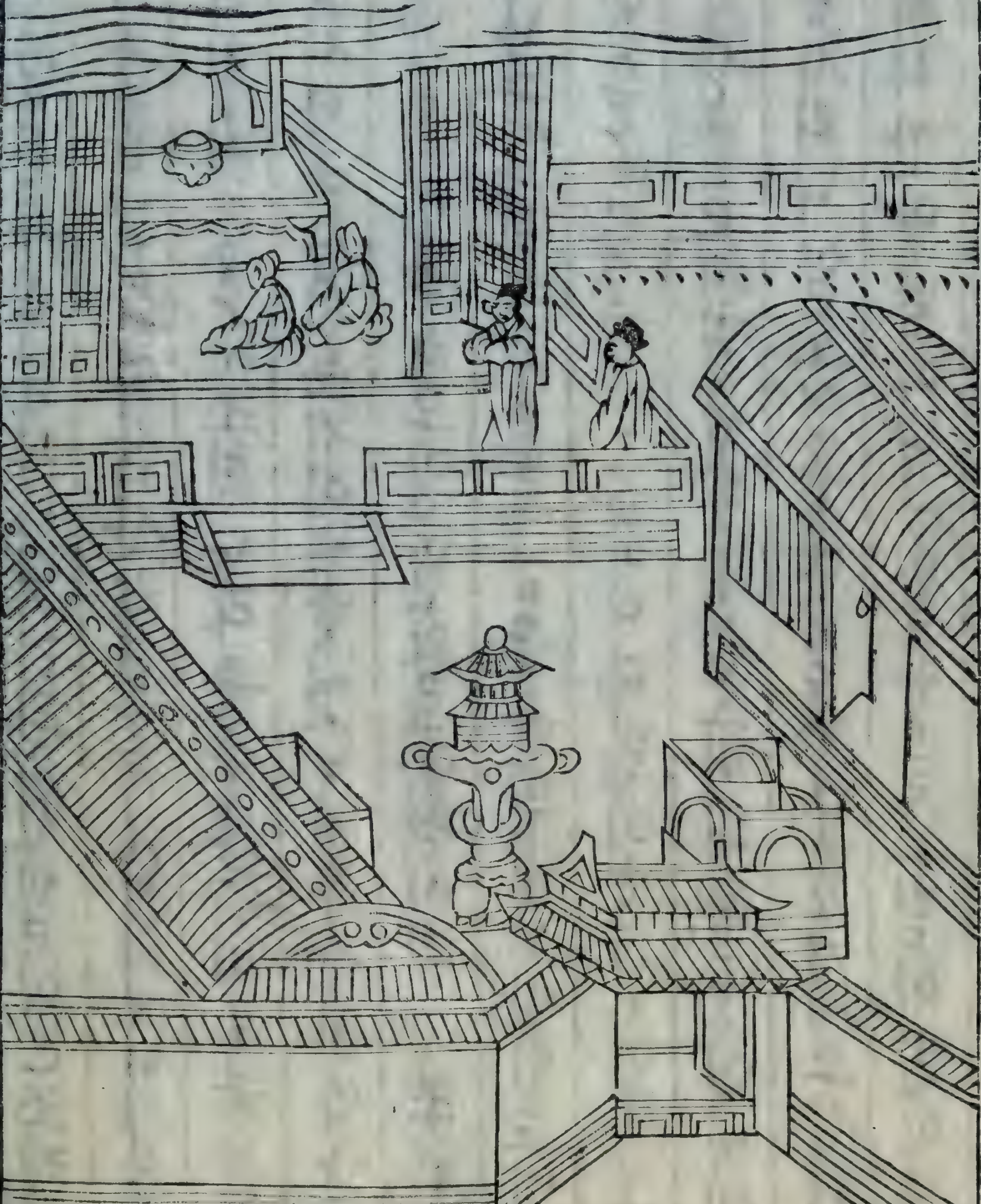
衛仲達初爲館職被攝至冥司冥官命吏具呈善惡二錄
比至則惡簿盈庭善簿纔如筯小官色變索秤稱之其小
軸乃壓起惡簿官喜曰君可出矣仲達曰某年未四十安
得過惡如是之多官曰不然但一念不正此則書之不待
其犯也仲達曰小軸中所書何事官曰朝廷常大興工役
修三山石橋君上疏諫止之此書稿也仲達曰某雖言之
朝廷不從於事何益官曰朝廷雖不從然念之爲君爲民
者卽此一事已足倘使聽從則善念流行乘此拜相度世
矣奈惡念太多力已減半不可復望大拜後果止吏部尚
書

위즁달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쳐음의ᄉᆞ관벼슬ᄒᆞ엿실졔
홀연이쥭어명부의드러가니명부관원이아젼을

명ᄒᆞ여즁달의쇠샹의이실졔착ᄒᆞᆫ날과악ᄒᆞᆫ날긔
록ᄒᆞᆫ거ᄉᆞᆯ가져오라ᄒᆞ여보니악ᄒᆞᆫ날긔록ᄒᆞᆫ문셔
는ᄯᅳᆯ의가득ᄒᆞ고착ᄒᆞᆫ날긔록ᄒᆞᆫ문셔는겨유져가락
만ᄒᆞᆫ지라 명부관원이노식을ᄯᅴ여좌우를명ᄒᆞ여
져울노두문셔를달아보니그착ᄒᆞᆫ날긔록ᄒᆞᆫ젹은문
셔의무게도로혀악ᄒᆞᆫ날긔록ᄒᆞᆫ만ᄒᆞᆫ문셔여셔더
무거운지라 관원이〻의깃거왈그듸는가히나가리로
다ᄒᆞ거ᄂᆞᆯ즁달이왈ᄂᆡ나히ᄉᆞ십이차지못ᄒᆞ여엇지악
ᄒᆞᆫ혀물이〻ᄀᆞᆺ치만ᄒᆞ리오관원이왈이는그러티아니
ᄒᆞ여다만ᄒᆞᆫ싱각이라도올치아니케ᄒᆞ면이곳의셔즉
지에긔록ᄒᆞ엿ᄂᆞ니굿ᄒᆞ여죄를벌ᄒᆞ기를기드리지아
ᄂᆡ미니이러므로그쉬이러틋만ᄒᆞ니라 즁달이왈져럭운

문셔의쓴말은무슨닐이니잇가관원왈이는조졍이
일즉큰역ᄉᆞ를닐희여삼산셕교를고칠시극샹소ᄒᆞ
여말녀시니졍히그글쓴조희니라즁달왈뇌비록글을올
녀간ᄒᆞ엿시나조졍이듯지아니ᄒᆞ엿ᄂᆞ니무슨유익ᄒᆞ미
잇셔착ᄒᆞᆫ닐이라ᄒᆞ리오관원왈조졍이비록좃지아
니ᄒᆞ엿시나그셩각이우ᄒᆞ로님군을위ᄒᆞ고아ᄅᆡ로ᄇᆡᆨ
셩의인녁을ᄉᆞ랑ᄒᆞᆫᄆᆞ음이니다만이ᄒᆞᆫ닐이족ᄒᆞ
지라만일그샹소를시ᄒᆡᆼᄒᆞ엿든들그ᄃᆡ의착ᄒᆞᆫ덕이셰
샹의흘넛시리라니일노인ᄒᆞ여졍승도ᄒᆞᆯ거시오신션도
될지실로ᄃᆡ다만악념이너무만흠으로그힘이반이남아
감ᄒᆞ엿시니ᄃᆞ시ᄃᆡ비ᄒᆞ기ᄂᆞᆫᄇᆞ라지못ᄒᆞ리라ᄒᆞ더니그
후과연니부샹셔ᄭᆞ지ᄒᆞ니라

江陰二生



萬曆間江陰常脩縣誌有兩生在局纂輯見舊所載節烈內有二人事平平無奇取筆抹去之歸過城隍廟見有兩婦人入內兩生異而尾之婦至神前訴曰某等一生苦節事載誌書今無端爲某某削去兩生聞呼其名卽跪訴曰一時誤筆願卽改之言畢兩婦忽不見矣此歸兩生精神恍惚不久並卒

만녁년간의강음현의일즉읍지를닷글서두션비이셔그글을모ᄒᆞ더니녯젹읍지의긔록ᄒᆞᆫ별녀ᄒᆡᆼ젹중의두부인이잇스되그닐이평〻ᄒᆞ여별노긔특ᄒᆞᆷ이업ᄂᆞᆫ지라인ᄒᆞ여부슬들어ᄒᆞ리우고읍지의올니지아니ᄒᆞ엿더니두션비집으로도라갈ᄉᆡ길이셩황묘를디나더니홀연보니두부인이잇셔셩황묘안ᄒᆞ로드러가거늘고이히녀여미

좃차드러가보니그두부인이묘신앏희나아가하소연ᄒᆞ
여ᄀᆞᆯ오ᄃᆡ우리둘의평ᄉᆡᆼ괴로온졀리로그날이읍지
의실녀ᄉᆞ건ᄂᆞᆯ무단이아모아모두사ᄅᆞᆷ의붓ᄶᅩᆺ희ᄉᆡᆨ가업
시ᄒᆞ여ᄉᆞ시나ᄌᆞ못원억ᄒᆞ여이다ᄒᆞ거ᄂᆞᆯ두션비졔셩명
을부ᄅᆞᆷ을듯고크게놀나이의ᄯᅩᄒᆞᆫ술어빌어왈우
리등이ᄒᆞᆫᄃᆡ붓ᄶᅩᆺ찰잘못둘녀ᄉᆞ오니원컨ᄃᆡ즉시고
치리이다ᄒᆞ고말을맛ᄎᆞ며그두분인이간ᄃᆡ업ᄂᆞᆫ지라
두션비이믜졔집의도라가미졍신이황홀ᄒᆞ더니오
ᄅᆡ지아니ᄒᆞ여다죽으니라

林鎬

林鎬莆田人爲工科給事時議開陝岱以通運載鎬奏罷之後以別事謫龍泉丞傷寒旣死而未殮鎬至一朱門中枷杻者不可勝數紫袍者索林鎬善惡簿鎬見天平內惡重善輕俄一霎自空而下手擲黃卷於內善忽偏重乃諫罷役疏也於是閻主者呼云入獄者某某變牲者某某還魂者林鎬鬼使乃引鎬出鎬問紫袍者爲誰曰宋參政范仲淹也驚而寤

님호ᄂᆞᆫ포뎐사ᄅᆞᆷ이라공과급ᄉᆞ벼ᄉᆞᆯ을ᄒᆞ엿더니셤의조졍의논이셤쥬디쥬ᄯᅡ희산과언덕을열어조운길을통ᄒᆞ라ᄒᆞᆯᄉᆡ님회상소ᄒᆞ야그날을간ᄒᆞ여말녀ᄉᆞ더니그후룡쳔승이되여맛ᄎᆞᆷ상한병으로죽은지라그ᄒᆞᆫ이침ᄒᆞ여ᄒᆞᆫ블근칠ᄒᆞᆫ문으로드러가니그안희칼쓴

지무슈ᄒᆞ고또불근옷닙은사ᄅᆞᆷ이잇셔님호의어진닐
긔록ᄒᆞᆫ문셔와악ᄒᆞᆫ닐긔록ᄒᆞᆫ문셔ᄅᆞᆯ취ᄒᆞ여저울의다
니악ᄒᆞᆫ문셰무겁고어진문셰가ᄇᆡ얍더니홀연ᄒᆞᆫ노인
이공즁으로셔ᄂᆞ려와손의누른칙ᄒᆞᆫ권을가져어진닐
문셔편의노흐니문득무겁기ᄇᆡ나ᄒᆞ니이ᄂᆞᆫ간ᄒᆞ여큰역ᄉᆞ
ᄅᆞᆯ막은샹쇠러라이의븕은옷닙은사ᄅᆞᆷ이모든죄인
을쳐결ᄒᆞᆯ셔ᄎᆞ례로호명ᄒᆞ여왈옥의가ᄋᆞᆯᄌᆞᄂᆞᆫ아모아모
요즘셩으로ᄐᆡ여날ᄌᆞᄂᆞᆫ아모아모요도로솔녀보낼ᄌᆞᄂᆞᆫ
님호라ᄒᆞ더니ᄋᆞ윽ᄒᆞ여ᄒᆞᆫ귀신님호ᄅᆞᆯ인도ᄒᆞ여나갈
셔회ᄉᆞ쟈ᄃᆞ려무러왈져븕은옷닙은사ᄅᆞᆷ은뉘요귀ᄉᆞ
답왈이ᄂᆞᆫ송나라참졍범즁엄이라ᄒᆞ더라회인ᄒᆞ
여놀나셔야회셩ᄒᆞ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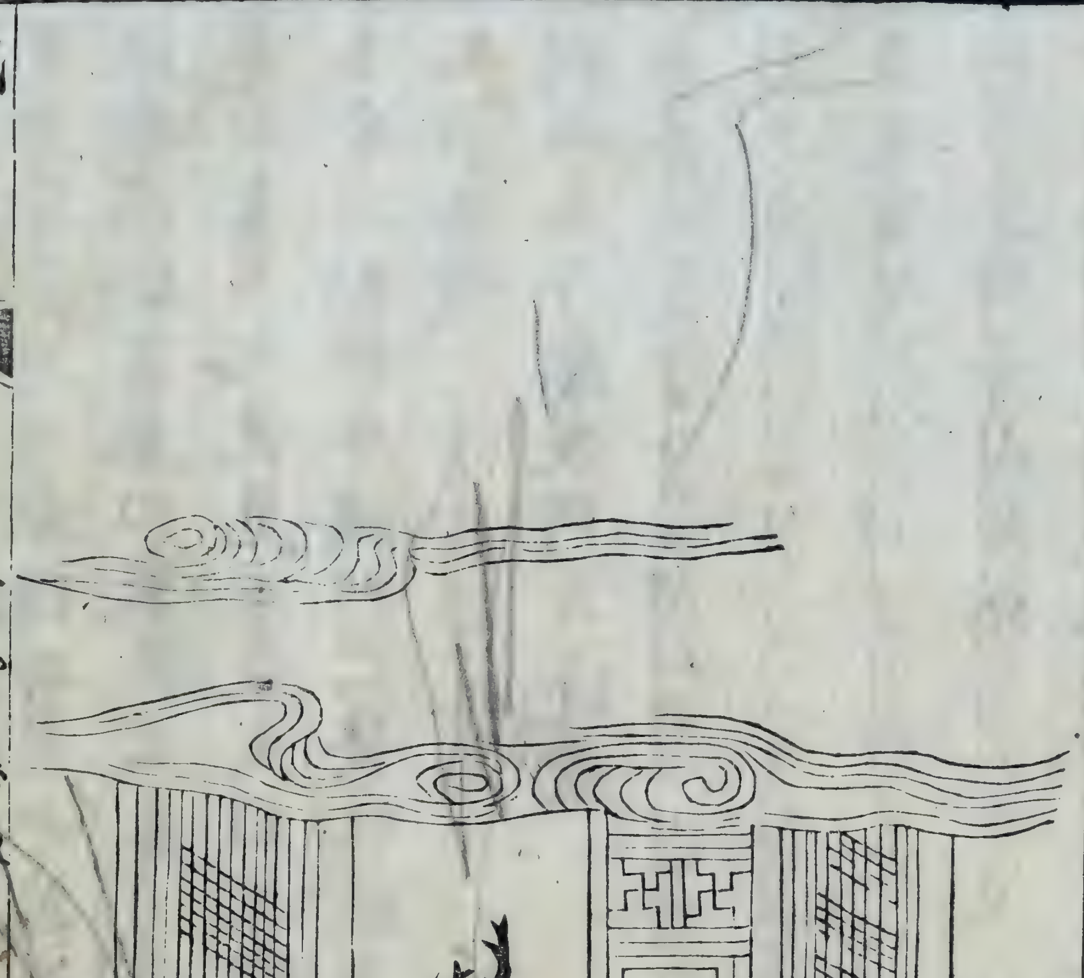
劉元昌

劉元昌字器之既登第復從學每以漆雕開未能信斯爲歉及拜諫官公忠敢言累抗疏論章惇小人不可用人皆爲縮頸及惇用事公遂遠竄人言春循梅新與死爲鄰高竇雷化說著便怕凡此八州公歷其七雖盛暑畏途泛海冒險監督者不少寬假人皆謂公必死而竟無恙時公貶所有一貲郎揣惇意欲徑殺公惇即擢爲本路判官其人飛馭來去貶所纔二十里止明日將處公左右震懼夜半忽聞鐘聲貲郎如有物擊嘔血死矣

뉴원챵의ᄌᆞᄂᆞᆫ긔지니일즉등과ᄒᆞ고ᄃᆞ시ᄒᆞᆨ업을힘쓰더니밋간관이되미공번되고츙셩되여발은말을감히ᄒᆞᆯ시여러번샹소ᄒᆞ여장돈을소인이라논힉ᄒᆞ니사ᄅᆞᆷ이모다놀나고두리더라밋장돈이용ᄉᆞᄒᆞ미공이인ᄒᆞ여원지졍비

ᄒᆞᆯ시면하뢰일악지ᄂᆞᆫ츈쥬슌쥬미쥬신쥬고쥬두쥬뇌쥬
화쥬라이여ᄃᆞᆲ고을의공이그일곱곳을격그되비록셩ᄒᆞᆫ
더위와험ᄒᆞᆫ길의보라ᄒᆞᆯ라며장긔ᄅᆞᆯ므릅ᄡᅳ고압녕ᄒᆞ、
ᄂᆞᆫ지조곰도누그러오미업ᄉᆞᄃᆡ필경관계치아니ᄒᆞ더라이ᄢᅴ
공의젹소의ᄒᆞᆫ부민이잇셔장돈의ᄯᅳᆺ을마초아공을즈
레쥭이려ᄒᆞ니장돈이깃거그고을의판관을삼아쳐치케ᄒᆞ
니그부민이나ᄂᆞᆫ드시공의젹소ᄅᆞᆯ향ᄒᆞᆯ시져유이십니즈
음을못미쳐날이져물ᄆᆡ밤을ᄃᆡᄂᆡ고명일의장ᄎᆞᆺ공
을결쳐ᄒᆞ라ᄒᆞ니좌의다놀나고두리더니그밤의ᄒᆞᆯ연
죵소ᄅᆡ나며공즁으로셔부민을치ᄂᆞᆫ듯ᄒᆞ여급히죽으니
이러므로공이면화ᄒᆞ니라

林機



蜀郡旱荒有司奏請發米十萬石以賑贍 旨下如所請
林機爲給事奏曰米數太多道遠難致朝廷遂以半賑之
是夜妻王氏恍見朱衣人曰林機逆旨害民
上帝有勑特令滅門因驚悸醒與夫言之機曰昨入朝有
阻穀賑饑之請莫非是事乎自此不安以病回鄉行至福
州卒二子繼歿門戶遂絶

촉군이일즉가믈어시졀이흉황ᄒᆞ니유ᄉᆞ알외여ᄡᆞᆯ십만
셕을보내여딘휼ᄒᆞ기를쳥ᄒᆞᆫᄃᆡ샹이됴타ᄒᆞ샤쳥ᄒᆞᆫᄃᆡ
로허ᄒᆞ여계시더니님긔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급ᄉᆞ벼슬노이셔알외
여ᄀᆞᆯ오ᄃᆡ곡식셕쉬ᄐᆡ과ᄒᆞ고ᄯᅩ길이멀어슈운키어렵다
ᄒᆞ니조졍이그말노조차그슈를반감ᄒᆞ엿더라이밤의그
쳐왕시ᄭᅮᆷ의ᄒᆞᆫ븕은옷닙은사ᄅᆞᆷ이닐너왈님긔군

의뜻을저ᄉᆞ리라고ᄇᆡᆨ셩을ᄒᆡᄅᆞᆸ게ᄒᆞ니샹졔특별이ᄅᆡ지
를나리우ᄉᆞᄒᆞ여곰멸문지화를쥬시니라ᄒᆞ거ᄂᆞᆯ놀나셔
여념괴로더부러몽ᄉᆞ를니르니님괴왈녀어졔조령의드러
가알외여ᄀᆞᆫ휼을막앗더니이아니오ᄂᆞᆯ인가ᄒᆞ고일노
조ᄎᆞ조연심신이불안ᄒᆞ니병으로인ᄒᆞ여벼ᄉᆞᆯ을ᄇᆞ리
고〻향으로도라갈ᄉᆡ힝ᄒᆞ여복쥬ᄯᅡ희니르러쥭고그두
아ᄃᆞᆯ이ᄯᅩᄒᆞᆫ이어쥭으니일문이인ᄒᆞ여ᄭᅳᆺ쳐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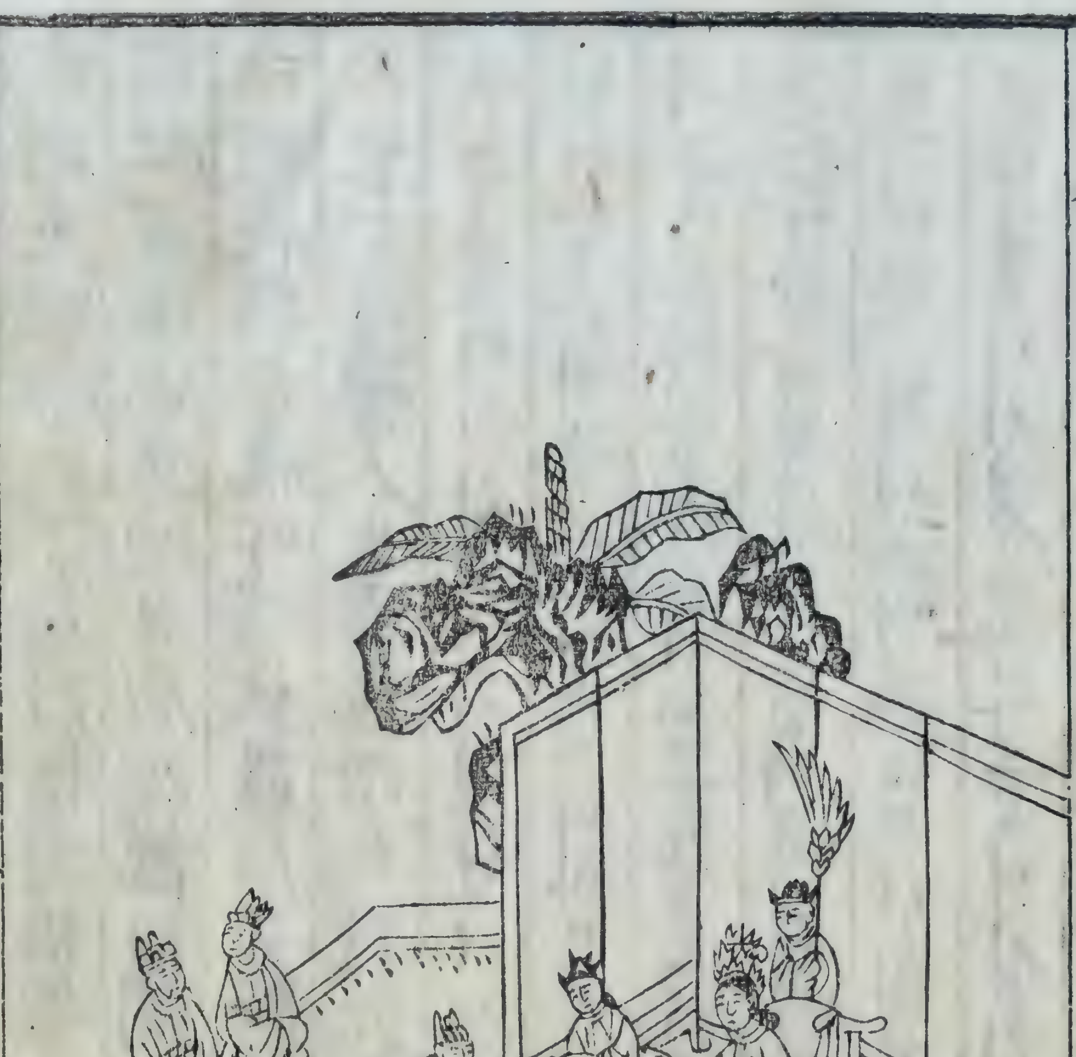
王翰

明景泰中王翰爲御史上疏勸易儲與禁錮南城事甚切
及英宗復位翰乃屢言二事之非上悅之許以大用一日
上御便殿忽風飄一本於御前閱之則翰勸易儲及禁錮
疏也急宣翰入示之稽顙出血遂伏誅此諂恩推過之報
也

명나라경ᄐᆡ황졔시졀의왕한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어ᄉᆞ벼
ᄉᆞᆯ을ᄒᆞ엿더니ᄐᆡᄌᆞ밧고아세우기와남셩의금고ᄒᆞᄂᆞᆫ
닐을녁권ᄒᆞ여힝ᄒᆞ믈시그말이심히간졀ᄒᆞ니이ᄂᆞᆫ영
죵의ᄐᆡᄌᆞ를폐ᄒᆞ고ᄌᆞ긔ᄐᆡᄌᆞ를세우ᄌᆞᄒᆞᆷ과영죵을남
셩의가도ᄌᆞᄒᆞᆷ이니이두닐은영죵이심히한ᄒᆞᄂᆞᆫ비라
그후의영죵황졔복위ᄒᆞ미ᄯᅩ영죵의ᄯᅳᆺ을아당ᄒᆞ여
도로혀말ᄒᆞ되그두닐이심히그ᄅᆞ다ᄒᆞ여ᄌᆞ로말ᄒᆞ니샹

이거득이덕이샤장ᄎᆞᆺ크제쓰길로허락ᄒᆞ시니라일ᄅᆞᆫ샹이
편젼의어좌ᄒᆞ실시홀연이글쓴조희ᄒᆞᆫ장이어젼의ᄯᅥ
러지거ᄂᆞᆯ좌우로ᄒᆞ여곰집어오라ᄒᆞ샤ᄯᅦ여보시니이곳왕
한의뒤ᄌᆞ밧고ᄂᆞᆫ날과 밋남셩의금고ᄒᆞᆫ날을녁권ᄒᆞᆫ
샹소초본이라 급히왕한을불너드러오미그글을뵈이시
니한이머리를조아피를흘니고쳥죄ᄒᆞ거ᄂᆞᆯ드ᄃᆡ여최
참ᄒᆞ니이ᄂᆞᆫ졔은혜아닌거ᄉᆞᆯ졔은혜로라ᄒᆞ며졔죄를남
의게밀우ᄂᆞᆫ보응이러라

杜肅



武則天時禁天下屠殺拾遺張德生男私殺羊會同僚補闕杜肅懷以奏明日后謂德曰聞卿生男甚喜德拜謝后曰何從得肉德叩頭伏罪后曰朕禁屠宰吉凶不預自今召客亦須擇人出肅表示之肅大慙擧朝欲唾其面

무측텬셰의텬하의녕ᄒᆞ여우양즘이ᄀᆞᆯ금ᄒᆞ엿더니습유벼ᄉᆞᆯᄒᆞᆫ장덕이아ᄃᆞᆯ을나ᄒᆞ미크게잔ᄎᆡᄒᆞᆯ시ᄉᆞᄉᆞ로이양을잡고동뇨ᄅᆞᆯ쳥ᄒᆞ엿더니보궐벼ᄉᆞᆯᄒᆞᆫ두슉이잔ᄎᆡ의참예ᄒᆞ엿다가양의고기ᄅᆞᆯ품어ᄃᆡ후ᄭᅴ알외니그이튼날ᄐᆡ후장덕ᄃᆞ려닐너왈ᄃᆞᄅᆞ니경이ᄉᆡᆼᄌᆞᄒᆞ다ᄒᆞ니심히깃부도다장덕이ᄇᆡ샤ᄒᆞᆫ대ᄐᆡ후ᄯᅩ무러왈경이동뇨ᄅᆞᆯ모하잔ᄎᆡᄅᆞᆯᄒᆞ다ᄒᆞ니어ᄃᆡ로조ᄎᆞ고기ᄅᆞᆯ엇어잔ᄎᆡᄒᆞ엿ᄂᆞ뇨ᄒᆞ시니

장덕이〻의덕후의알으심을알고황공ᄒᆞ여고ᄃᆞ
쳥죄ᄒᆞ니덕희ᄀᆞᆯ오샤ᄃᆡ림이ᄉᆞ도ᄅᆞᆯ금ᄒᆞ미다만무
고이쥭이믈금ᄒᆞ미요길흉ᄃᆡᄉᆞ의논의논ᄒᆞᆯ비아니〻
굿ᄒᆞ여관계ᄒᆞ리오슈연이나ᄎᆞ후는긔각을모드미부
ᄃᆡ사ᄅᆞᆷ올갈히여쳥ᄒᆞᆯ지라ᄒᆞ시고드ᄃᆡ여슉의
표ᄅᆞᆯᄂᆡ여뵈시니슉이크게붓그리고만조ᄇᆡᆨ관이
다그얼굴의춤을밧고져ᄒᆞ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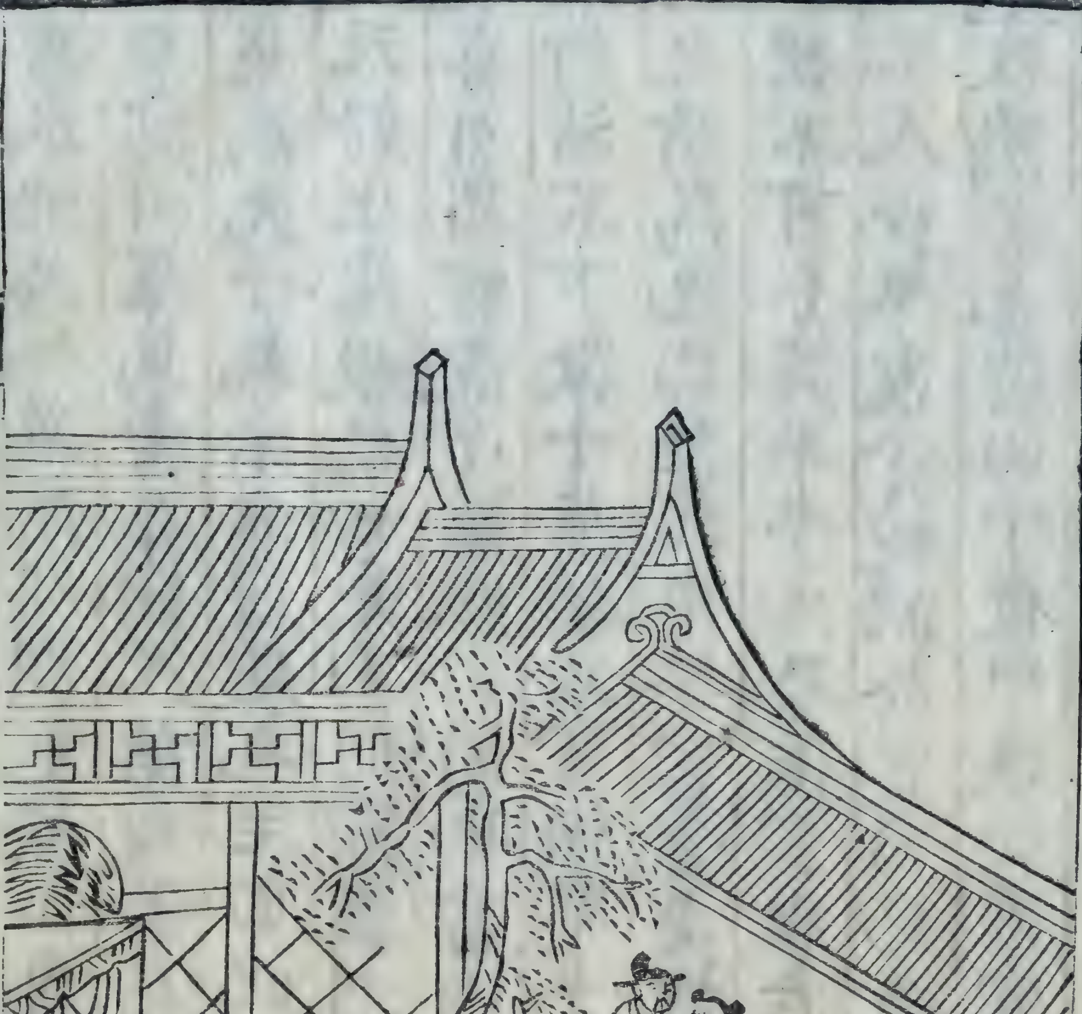
趙抃

昔趙抃帥蜀時有妓戴杏花色甚麗公偶戲曰髻上杏花眞有幸妓卽應曰枝頭梅子豈無媒至晩公使一老兵呼妓遲遲不至公忽厲聲自呼曰趙抃不得無禮急令人召回老兵老兵乃自幕後出曰某實未往某事相公最久相公邪徑分毫不染知今日之事不過一時此念便息耳

송나라ᄯᅢ의됴변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셔쳔졀도ᄉᆞ되엿더니그ᄯᅢ의일ᄒᆞᆷ난기ᄉᆡᆼᄒᆞ나히잇셔머리의ᄒᆡᆼ화ᄅᆞᆯᄭᅩ조시니ᄉᆡᆨ티졀승ᄒᆞᆫ지라공이우연이희롱ᄒᆞ여왈계상ᄒᆡᆼ화진유ᄒᆡᆼ이라ᄒᆞ、니이ᄂᆞᆫ그ᄉᆡᆨ을기려희롱ᄒᆞᆷ이라그기ᄉᆡᆼ이즉시응셩ᄒᆞ야왈지두미ᄌᆞ긔무ᄆᆡ리오ᄒᆞ니이ᄂᆞᆫ일노즁ᄆᆡᄒᆞ여스ᄉᆞ로쳔거ᄒᆞᄂᆞᆫᄯᅳᆺ이라공이〻믜그ᄉᆡᆨ을깃거ᄒᆞ고ᄯᅩ그지조ᄅᆞᆯᄉᆞ랑ᄒᆞ여이날밤의ᄒᆞᆫ늘근군ᄉᆞ로ᄒᆞ여곰그기ᄉᆡᆼ을부르ᄅᆞᆯ시냥구히오지아니

ᄒᆞ더니 공이 홀연이 크게 소릐ᄒᆞ여 왈 됴변아 어이 무례ᄒᆞᆫ고
ᄒᆞ며 급히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그 군ᄉᆞ를 도로 부르니 그 군ᄉᆡ 당막
뒤흐로조ᄎᆞ 나아오며 ᄀᆞᆯ오ᄃᆡ ᄂᆡ 실노 가지 아니ᄒᆞ엿노라 ᄒᆞ거
ᄂᆞᆯ 공이 그 연고를 므ᄅᆞ니 ᄃᆡ왈 조인이 샹공을 조ᄎᆞ 셤긴지 오린
지라 일즉 샹공의 려ᄉᆞᄒᆞ심을 보오미 조곰도 그릇ᄒᆞ심이
업더니 오날 볼이 필연 일시를 넘자 아니ᄒᆞ여 그 ᄉᆡᆼ각이그
치실 줄을 아압ᄂᆞᆫ 고로 짐즛 기ᄃᆞ렷ᄂᆞ이다 ᄒᆞ더라

姚思仁



秀水姚思仁萬曆年間巡按山東河南誅殺頗多忽被攝至冥司羣鬼索命冥王詰曰爾爲御史何好殺如此姚曰某爲天子執法非好殺也王曰此言過矣凡爲官當體上天好生惡殺之心先王刑期無刑之意今爾不以哀矜勿喜自省理應受罪姚曰固也當兩省凶荒某嘗上疏請賑所活不下數千萬獨不可相準乎王曰此爾幕賓賀燦然之所爲也已註其中年富貴矣姚曰稿雖賀作疏由某上獨不可分其半乎王乃依言斥去羣鬼令其生還賀亦秀水人少年家貧從姚於官因見凶荒特作疏稿勸姚上請救饑者也賀四十後中進士累官冢宰姚亦官至工部尚書

수슈ᄯᅡ희요ᄉᆞ인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만녁년간의어ᄉᆞ벼슬

이되여산동과하라ᄆᆞ을슌히ᄒᆞᆯ시ᄌᆞ못사ᄅᆞᆷ쥭이미만
핫더니홀연귀ᄉᆞ의게잡히여명부의닐르니무슈ᄒᆞᆫ귀신
이목숨을달나ᄒᆞ며ᄯᅩ념왕이힐문ᄒᆞ여왈네세샹의
잇셔엇지사ᄅᆞᆷ쥭이믈이ᄀᆞᆺ치됴하ᄒᆞ뇨ᄉᆞ인이ᄃᆡ왈녀편
ᄌᆞ를위ᄒᆞ여집법ᄒᆞᆷ이오쥭이기ᄅᆞᆯ됴하ᄒᆞᆷ이아니로소이다
왕왈네말이그르다무릇관원이되미맛당이샹뎐의
호싱지덕과션왕의형벌업시ᄒᆞ는ᄠᅳᆺ을본밧을거
시어ᄂᆞᆯ이제너는사ᄅᆞᆷ을불샹이넉이ᄂᆞᆫᄆᆞ음으로ᄡᅥ경계
치아니ᄒᆞ니이맛당이죄ᄅᆞᆯ밧으리로다ᄉᆞ인왈그ᄂᆞᆫ진
실노그러다ᄒᆞ려니와싱각건ᄃᆡ기시흉년을당ᄒᆞ여냥
셩빅셩이쥭기의니르럿거ᄂᆞᆯ내일즉샹소ᄒᆞ여뎐휼
을쳥ᄒᆞ여ᄉᆞ시니ᄉᆞᆯ온비슈쳔만의ᄂᆞ리지아닌지라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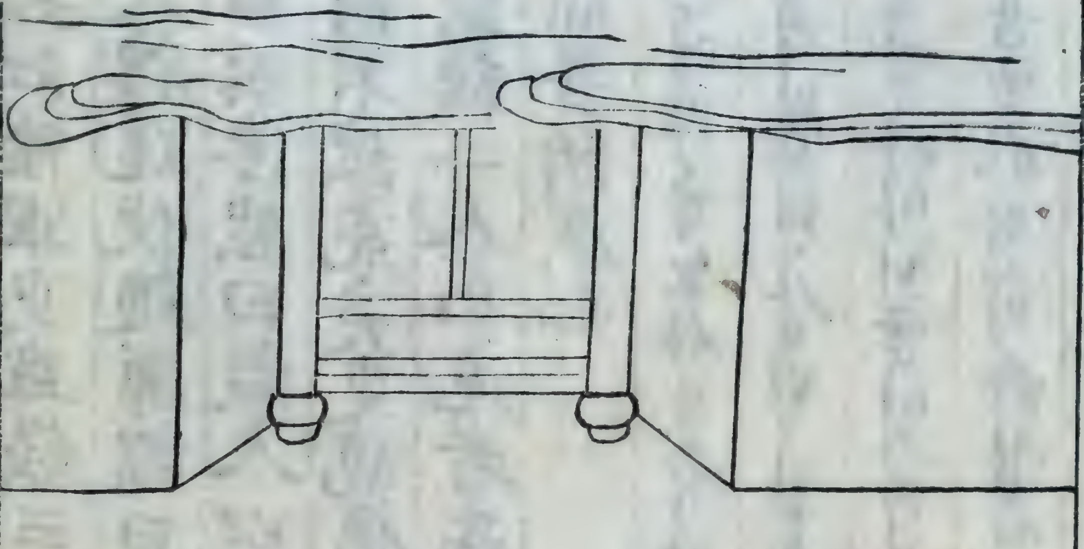
홀노이날노ᄡᅥ샹젹지못ᄒᆞ리오왕왈이ᄂᆞᆫ네막하의잇
ᄂᆞᆫ하찬연의시긴비라임의하찬연으로즁년부귀를ᄒᆞ
게ᄒᆞ엿시니녀ᄂᆞᆫ알은체ᄒᆞᆯ빈아니로다ᄉᆞ인왈그샹소초
ᄂᆞᆫ비록하찬연의지은빈오나소ᄅᆞᆯ올녀셩ᄉᆞᄒᆞ기ᄂᆞᆫ날노
말ᄆᆡ암으미니그공을엇지절반도난호지못ᄒᆞ리잇가
ᄒᆞ니왕이〻의그말을올히녀여모든귀신을물니티고그
혼을도로ᄇᆡ여보ᄂᆡ니라하찬연도ᄯᅩᄒᆞᆫ수슈ᄯᅢ사ᄅᆞᆷ이니
소시의집이빈한ᄒᆞ여요ᄉᆞ인을좃ᄎᆞ막즁의잇더니홍
황ᄒᆞᆫ시졀을당ᄒᆞ여소초ᄅᆞᆯ니고ᄉᆞ인을권ᄒᆞ여조졍의
쳥ᄒᆞ야거민을ᄉᆞᆯ닌져려라하찬연이나히ᄉᆞ십후의
진ᄉᆞᄒᆞ여벼ᄉᆞᆯ이홍져의니ᄅᆞ고요ᄉᆞ인이ᄯᅩᄒᆞᆫ벼ᄉᆞᆯ이공
부상셔의니ᄅᆞ럿더라

王珣

嘉靖時御史王珣巡按三吳舊例獲盜至三百人者陞四品俸珣部中所獲至數千人按之多非實公盡釋去曰我不敢爲官而陷人也任滿公陞左都御史後四子皆登進士

가졍ᄯᅢ의어ᄉᆞ왕슌이삼오ᄯᅡ흘슌찰ᄒᆞᆯ시이ᄯᅢ의국법이도적삼빅인을잡으면ᄉᆞ품벼ᄉᆞᆯ의오르ᄂᆞᆫ젼녜라이ᄯᅢ왕슌의부하의잡힌도적이슈쳔여인이라이믜ᄉᆞ힉ᄒᆞ미널이만히샹실ᄒᆞ여이믜ᄒᆞᆫ젹무슈ᄒᆞᆫ지라이의모다노하보내여왈내엇지벼ᄉᆞᆯ을위ᄒᆞ여사ᄅᆞᆷ을상희오리오ᄒᆞ더니그후공이과만ᄒᆞ여좌도어ᄉᆞ로승품ᄒᆞ고ᄯᅩ공의네아ᄃᆞᆯ이모ᄃᆞ진ᄉᆞ급졔ᄒᆞ엿더라

張淇



宋張淇知江陰軍吏盜錢三百萬二十年矣淇發其奸捕
繫數十人轉運使趙廓謂曰此應賞典願竄諸盜錢吏吾
以聞於朝淇慘然曰殺人以求賞可乎悉召諸吏諭以償
錢則赦罪不然死矣吏親屬聞之爭出錢以償十日而足
乃推同盜錢二人已死者爲首餘悉貸不問廓愧而歎曰
公長者非吾所及也

송나라장긔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강음ᄯᅡᄒᆡ벼ᄉᆞᆯᄒᆞ엿실ᄉᆡ그ᄯᅢ
아젼의무리관젼삼ᄇᆡᆨ만을도적ᄒᆞ여이믜슈십년이념
엇시되발각지아니ᄒᆞ엿더니장긔도임ᄒᆞ고그날을적발
ᄒᆞ니범용ᄒᆞᆫ아젼이슈십인이라젼운ᄉᆞ료확이닐너왈
이제모든도적ᄒᆞᆫ아젼을ᄃᆞᄉᆞ려즁죄를더으면너ᄆᆞᆺ당이〻
널노ᄡᅥ조졍의알외리니벅〻이즁ᄒᆞᆫ상젼을엇으리라

라ᄒᆞ거ᄂᆞᆯ장긔참혹히너겨왈엇지굿ᄒᆞ여사ᄅᆞᆷ을죽여상
을구ᄒᆞ리오ᄒᆞ고모든아젼을불너효유ᄒᆞ여왈너희관뎐
을범용ᄒᆞ미그죄당〻이죽을지라이제만일돈을드려여슈
히갑흘진댄너ᄯᅩᄒᆞᆫ맛당이그죄ᄅᆞᆯ샤ᄒᆞ리라ᄒᆞ니모든아
젼의족속이〻말을듯고저마다돈을내여도토아보치니열
흘이ᄎᆞ지못ᄒᆞ여그쉬이믜ᄎᆞᆺᄂᆞᆫ지라이의그무리중의이왕두
죽은사ᄅᆞᆷ으로ᄡᅥ괴슈ᄅᆞᆯ지어죄ᄅᆞᆯ미루고남은여러사ᄅᆞᆷ은모
다죄ᄅᆞᆯ샤ᄒᆞ여뭇지아니ᄒᆞ니됴확이붓그려고탄복ᄒᆞ여왈
공은진ᄎᆞᆺ댱쟈라나의밋ᄎᆞᆯ비아니라ᄒᆞ더라

曾櫻

天啓丙寅歲晉陵大旱自三月至五月不雨畊插未舉禾
種焦枯民心惶惶時太守曾櫻號二雲潔己愛民析禱甚
虔延師築壇率縉紳士民晨夕叩禱天心不回公爲夜臥
不寧忽忽若夢見神告曰明晨有德行老人鬚髮如雪進
西門城邀以禱雨不應舉火焚之雨必足功只在其一傘
頁公昧旦卽遣人伺於郡西門果見老者鬚髮皓然延至
事以隆禮懇代吏民請命於天老者竦然謝不敏公實以
神明之命老人感公誠切願捐身力禱赴壇焚香告天誓
不飲食自限三日不雨卽赴火四圍積薪踰其壇老人竟
日百拜次日腹枵力疲叩頭而已第三日寅刻忽生黑雲
俄傾四合大雨盈尺萬民懽呼公拜酬老人問以平生積
何功行一傘有何異處老人答曰愚民未諳詩書無所知

識但生年八十惟敬天地神明朔望節候必焚香叩拜所挾一傘遇出路便溺必張護身毋令穢觸三光耳公爲肅然增敬厚遺送歸老人姓羊名稔荊溪之北鄕人也

晉永和間一童子年七歲父母俱臥病童子夜就星月下悲啼懇禱爲父母祈壽如是經月不輟一夕父母夢神示曰汝夫妻數當盡賴有孝子爲爾增壽矣

텬계병인셰의단능셔히크게가믈어삼월부터오월의니르히졈우도오지아니ᄒᆞ니능히밧갈아시므지못ᄒᆞ고이왕시문화셔ᄇᆞᆫ다고마르ᄂᆞᆫ지라민심이황〻ᄒᆞ여조셕을보젼티못ᄒᆞᆯ듯ᄒᆞ더라티슈증잉이몸가지오미결빅ᄒᆞ고빅셩을ᄉᆞ랑ᄒᆞ더니이러ᄐᆞᆺᄒᆞᆫ한적을보고졍셩을다ᄒᆞ여비를빌셰도ᄉᆞ를쳥ᄒᆞ여놉히단을ᄆᆞ으고ᄉᆞ민을거ᄂᆞ려쥬야로

머리조아긔도ᄒᆞ되더니심이두루혀심이업ᄂᆞᆫ지라공이밤을
당ᄒᆞ여심신이편티못ᄒᆞ더니홀연비몽ᄉᆞ몽간의신인이
닐너왈너일ᄉᆡ벽의맛당이ᄇᆡᆨ발노인이잇셔ᄒᆞᆫ우산
을가지고셔문을로드러올거시니공경도이쳥ᄒᆞ여비를빌
되효험이업거든불노써ᄉᆞᆯ오면비오기반ᄃᆞ시ᄒᆞᆯ지니그
공덕이다만그우산의잇ᄂᆞ니라ᄒᆞ거ᄂᆞᆯ놀나ᄭᆡ여즉시사
ᄅᆞᆷ을보ᄂᆡ여셔문의기ᄃᆞ리더니과연ᄒᆞᆫᄇᆡᆨ발노인이니르
거ᄂᆞᆯ마자도라와후례로써ᄃᆡ접ᄒᆞ고ᄆᆞᆫ졀이비러긔우
ᄒᆞ기를쳥ᄒᆞ니노인이황송ᄒᆞ여저조업ᄉᆞᆷ을로써ᄉᆞ양ᄒᆞ거
ᄂᆞᆯ공이신명의ᄆᆞᆯᄋᆞᆫ치믈고ᄒᆞᆫ뒤노인이공의졍셩을감동
ᄒᆞ여몸을ᄇᆞ리고힘을다ᄒᆞ여긔우ᄒᆞ기를허락ᄒᆞ고단의
올나향을픠우고하ᄂᆞᆯ긔고ᄒᆞ여비오기젼의음식을먹

지아니려명셰ᄒᆞ고삼일을빌어비오지아니ᄒᆞ면불의나
아가죽으리라ᄒᆞ여단을둘너셥흘쏫고날이맛도록빅
번이나졀ᄒᆞ더니그이튼날은비곫프고근녁이픠진ᄒᆞ
여다만머리를조을ᄲᅮᆫ이러니졔삼일인시즈음의홀연ᄉᆞ
면의검은구름이닐며큰비븟ᄃᆞ시오니거의ᄒᆞᆫ자이남은지
라만민이즐겨브르지ᄌᆞ며공이ᄯᅩᄒᆞᆫ졀ᄒᆞ여무슈이샤례ᄒᆞ
고인ᄒᆞ여무러왈극평셩의무ᄉᆞᆫ공덕을이러ᄃᆞ시ᄭᅳᆺᄒᆞ시
며ᄯᅩ져우산은무ᄉᆞᆫ괴이홈이잇ᄂᆞᆫ요노인왈셩은산촌우
민이라시셔를아지못ᄒᆞ고지식이업ᄉᆞ오나셩년팔십의오
직뎐지신명을공경ᄒᆞ여삭망과졀일의반ᄃᆞ시분향
녜비ᄒᆞ고가진바져우산은길의단닐제오즘ᄯᅩᆼ을누려
ᄒᆞ면반ᄃᆞ시베푸러몸을가리워더러운긔운으로ᄲᅧ일ᄅ

월셩신씌셔이지아니케ᄒᆞ미라ᄒᆞ니공이더옥슉연이공경ᄒᆞ고두려이쥬어보내니라노인의셩은양이오명은념이니형계북향사ᄅᆞᆷ이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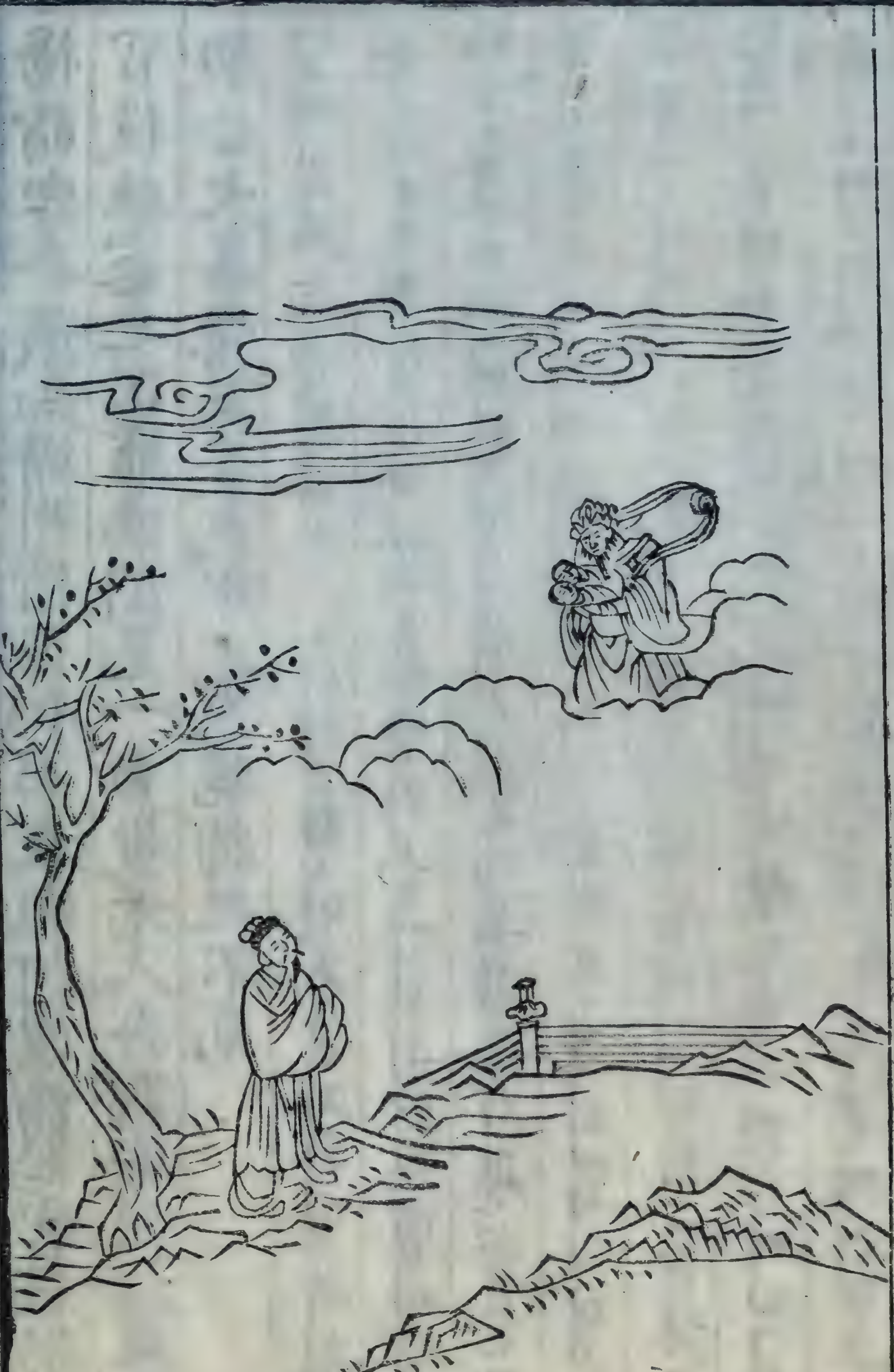
뎐나라영화년간의ᄒᆞᆫ아희잇스니나히칠셰라부뫼일시의병들어누엇거ᄂᆞᆯ그아희밤마다ᄃᆞᆯ과별아래나아가울며부모의장슈ᄒᆞ기ᄅᆞᆯ빌어이러ᄐᆞᆺ시ᄃᆞᆯ이념도록그치지아니ᄒᆞ더니일〻은그부뫼ᄭᅮᆷ의신인이고ᄒᆞ여왈너희부쳬망당이쉬단ᄒᆞᆯ벽어ᄂᆞᆯ네효ᄌᆞ의졍셩으로인ᄒᆞ여슈ᄅᆞᆯ더으ᄂᆞ니라ᄒᆞ더니그후오리지아니ᄒᆞ여병이낫고부뫼장슈ᄒᆞ니라

楊詣

楊諧字公儀知滑州清正仁慈夜報河波諧恐害民躬率官役往塞之正窮急間見一白髮老人舟載稽稈往來佐助公大喜意是豪民水定天曉詢之不見

양예의ᄌᆞ는공의니유인이쳥렴인ᄌᆞᄒᆞᆫ지라일쟉활쥬ᄌᆞᄉᆞᄅᆞᆯᄒᆞ엿더니일ᄋᆞᆫ밤의드르니하슈터져형셰급ᄒᆞ다ᄒᆞ거ᄂᆞᆯ양예빅셩이해로올가두려즉시관속을ᄃᆞ리고몸소나아가터진곳을막을시물역이업셔졍히위급ᄒᆞ더니홀연ᄒᆞᆫ빅발노인이잇셔비의집흘싯고왕ᄂᆡᄒᆞ며막ᄂᆞᆫ지라공이크게깃거헤오ᄃᆡ이반ᄃᆞ시빅셩즁호걸이라ᄒᆞ엿더니이미물을막고날이새미그노인을ᄎᆞ즈니ᄃᆞ시보지못ᄒᆞᆯ지라이ᄂᆞᆫ신인이양예의졍셩을감동ᄒᆞ여가마니도음이러라

馬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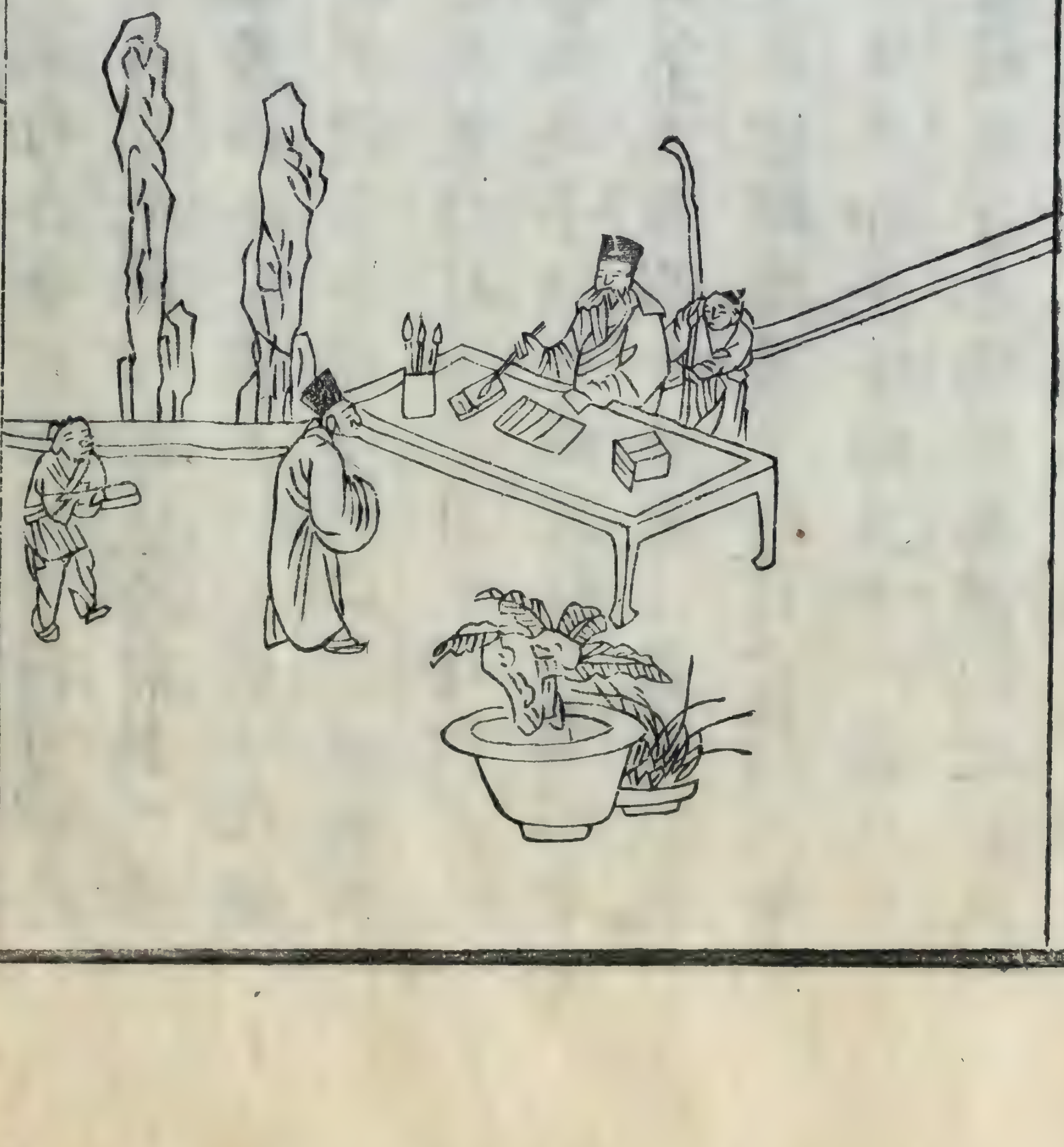


成武馬默知登州宋制沙門島罪人官給粮者三百人多則取投海中默奏神宗言朝廷旣貸其死今以溢額而投海有傷皇恩乞查發配年久無過者移登州上納之著爲令自此全活無算默無子一日正晝見緋幘雲帔者挾二男女自天而下曰我奉天符以汝移沙門島罪人事俾續其嗣俄乘雲去遂生男女二人皆聰慧默仕至都轉運使

송나라마묵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등쥬고을원을ᄒᆞ엿더니송나라법의ᄉᆞ문도의귀향보낸죄인을관가로냥식쥬어먹이ᄂᆞᆫ졍쉬삼ᄇᆡᆨ인이라그슈의넘으면ᄇᆞ다희너허죽이ᄂᆞᆫ젼례라마묵이신종ᄭᅴ알외여왈조졍이임의죄인의죽기를면ᄒᆞ여챤비ᄒᆞ엿거ᄂᆞᆯ이제그슈의넘기로ᄇᆞ다희더허죽이면이ᄂᆞᆫ형벌을그ᄅᆞᆺᄒᆞᆷ이오ᄯᅩᄒᆞᆫ황은은

이손상ᄒᆞᆯ지니 쳥컨ᄃᆡ 이후ᄂᆞᆫ ᄌᆞ셰히 ᄉᆞ실ᄒᆞ여 졍빈ᄒᆞᆫ 년
죄오리고 죄젹은 ᄌᆞ를 갈희여 등쥬로 옴기미 됴흘가 ᄒᆞᄂᆞ이다
ᄒᆞ니 샹이 허락ᄒᆞ샤 인ᄒᆞ여 ᄡᅥ 법뎨를 삼으라 ᄒᆞ시니 일노부
터 온젼이 ᄉᆞᆯ온 지 그 슈를 아지 못ᄒᆞᆯ너라 마묵이 일즉 무ᄌᆞ
ᄒᆞ더니 하로ᄂᆞᆫ 빅쥬의 ᄒᆞᆫ 븕은 관 쓴 션관이 두 아희 남녀를
압희 안고 구름 속으로 ᄂᆞ려와 마묵ᄃᆞ려 닐너 왈 ᄂᆡ 하ᄂᆞᆯ의
명ᄒᆞ신 문셔를 밧아시니 닐너시되 네 일즉 ᄉᆞ문도 죄인을
쥭지 아니게 ᄒᆞ여 ᄉᆞ시미 그 음덕으로 네 ᄌᆞ손을 잇게 ᄒᆞ라 ᄒᆞ시니
이러므로 두 아희를 쥬노라 ᄒᆞ고 말을 마ᄎᆞ미 구름을 타고 도
라가더니 그 후 과연 아ᄃᆞᆯ과 ᄯᆞᆯ을 나흐니 다 총명영오ᄒᆞ、
고 마묵이 ᄯᅩ ᄒᆞᆫ 벼ᄉᆞᆯ이 도젼운ᄉᆞ의 니르럿더라

袁了凡



袁了凡自述余童年喪父老母命棄業而學醫謂可以養生可以濟人且一藝以成名爾父夙心也後余在慈雲寺遇一老者修髯偉貌飄飄若仙余敬禮之語余曰子仕路中人也明年即進學矣何不讀書余告以故曰吾姓孔雲南人也得邵子皇極數正傳數該傳汝予引之歸試其數纖悉皆驗余遂起讀書念孔爲予起數縣考童生當四十名府考七十一名提學考第九名明年赴考三處名數皆合復爲卜終身休咎言某年當補廩某年當貢貢後某年當選四川一大尹在任二年半即宜告歸五十三歲八月十四日丑時當終於正寢惜無子余備錄而謹記之自此以後凡遇考校其名數先後皆不出孔公所懸定者獨算余食廩米九十一石五斗當出貢及食米七十餘石屠宗

師卽批准補貢余竊疑之後果爲署印楊公所駁直至丁
卯年始准貢連前食米計之實九十一石五斗也余因此
益信進退有命澹然無求矣貢入燕都留京一年歸遊南
雍未入監先訪雲谷會禪師於棲霞山中對坐一室凡三
晝夜不瞑目雲谷問曰凡人所以不得作聖者只爲妄念
相纒耳汝坐三日不見起一妄念余曰吾爲孔先生算定
榮辱死生皆有定數卽要妄想亦無可妄想雲谷笑曰我
待汝是豪傑原來只是凡夫問其故曰人生安得無數但
惟凡人有數極善之人數固拘他不得極惡之人數亦拘
他不得汝二十年來被他算定不曾動轉一毫豈不是凡
夫余曰然則數可逃乎曰命自我作福自己求詩書所稱
的爲明訓我敎典中說求功名得功名求富貴得富貴求

男女得男女求長壽得長壽夫妄語乃釋迦大戒諸佛菩薩豈誑語欺人余進曰孟子言求則得之是求在我者也道德仁義可以力求功名富貴如何求得雲谷曰孟子之言不錯汝自錯解了六祖說一切福田不離方寸從心而覺感無不通求在我不獨得道德仁義亦得功名富貴內外雙得是求有益於得也若不返躬內省而徒向外馳求則求之有道得之有命矣內外雙失故無益因問孔公算汝終身若何余以實告雲谷曰汝自揣應得科第否應生子否余追省良久曰不應也科第中人類有福相余福薄又不能積功累行以基厚福兼不耐煩劇不能容人時或以才智蓋人直心直行輕言妄談凡此皆薄福之相也豈宜科第哉地之穢者多生物水之清者常無魚余好潔和

氣能育萬物余善怒愛爲生生之本忍爲不育之根余矜
惜名節常不能舍已救人又多言耗氣喜飲爍精好徹夜
長坐而不知葆元毓神皆空無子其餘過惡尚多不能悉
數雲谷曰豈惟科第哉世間享千金之產者定是千金人
物享百金之產者定是百金人物應餓死者定是餓死人
物天不過因材而篤幾曾加纖毫意思卽如生子有百世
之德者定有百世子孫保之有十世之德者定有十世子
孫保之有三世二世之德者定有三世二世子孫保之其
斬焉無後者德至薄也汝今旣知非將向來不發科第不
生子之相盡情改刷務要積德務要包荒務要和愛務要
惜精神從前種種譬如昨日死從後種種譬如今日生此
義理再生之身也夫骨肉之身尚然有數義理之身豈不

能格天余信其言拜而受教因將往日之罪從今盡情發露爲疏一通先求登科誓行善事三千條以報天地祖宗之德雲谷出功過格示余令所行之事逐日登記善則記數惡則退除且教持準提呪以期必驗余初號學海是日改號了凡蓋悟立命之說而欲不落凡夫窠臼也從此而後終日兢兢便覺與前不同前日只是悠悠放任到此自有戰兢惕勵景象若在暗室屋漏中常恐得罪天地鬼神遇人憎我毀我自能恬然容受到明年赴部考科舉孔先生算該第二忽考第一其言不驗而秋闈中式矣然行義未純撿身多誤或見善而行之不勇或救人而心常自疑或自勉爲善而口有過言或醒時操持而醉後放逸以過折功日常虛度自己巳歲發願直至己卯歲歷十餘年而

三千善事始完時方有事入關庚辰南還始及回向遂起求子願亦許行三千善事辛巳生汝天啓余行一事隨以筆記汝母不能書每行一事輒用鵝毛管印一紅圈於曆日之上或施貪人或放生命一日有多至十餘圈者至癸未八月三千之數已滿九月十三日復起求中進士愿許行善事一萬條丙戌登第授寶坻知縣余置空格一冊名曰治心篇晨起坐堂家人攜付門役置案上所行善惡纖悉必記夜則設卓於庭效趙閱道焚香告帝汝母見所行不多輒頻蹙曰我前在家相助爲善故三千之數得完今計一萬衙中無事可行何時得圓滿乎夜間偶夢見一神人余言善事難完之故神曰只減粮一節萬行俱完矣蓋寶坻之田每畝二分三釐七毫余爲區處減至一分四釐

六毫委有此事心頗疑惑適幻余禪師自五臺來余以夢告之且問此事定信否師曰此心眞切卽一行可當萬善況合縣減粮萬民受福乎吾卽捐俸銀令其就五臺山齋僧一萬而回向之孔氏算余五十三歲有厄余未嘗祈壽是歲竟無恙今六十九矣汝之命未知若何卽命當榮顯常作落莫想卽時當順利常作拂逆想卽現頗足食常作貧窶想卽人相愛敬常作恐懼想卽家世望重常作卑下想卽學問頗優常作淺陋想遠思揚祖之德近思蓋父之愆上思報國之恩下思造家之福外思濟人之急內思閑己之邪日日知非日日改過一日不知非卽一日安於自是一日無過可改卽一日無步可進天下聰明俊秀不少所以德不加修業不加廣者只爲因循二字擔閣一生雲

谷禪師所授立命之說乃至精至邃至中至正之理其熟
玩而勉行之毋自曠也
원효범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ᄉᆞᄉᆞ로평ᄉᆡᆼ날을긔록ᄒᆞ여그아
ᄃᆞᆯ을경계ᄒᆞ니기ᄉᆡ의ᄆᆞᄋᆞ시되너어려셔염친을녀희고노
뫼날을명ᄒᆞ여ᄒᆞᆨ업을ᄇᆞ리고의슐을ᄇᆡ호라ᄒᆞ시며
ᄯᅩ니ᄅᆞᄉᆞ샤ᄃᆡ의슐을졍히ᄒᆞ면가히양ᄉᆡᆼ도ᄒᆞᆯ거시오ᄯᅩ가
히사ᄅᆞᆷ의쥭으믈건질거시오ᄯᅩᄒᆞᆫ사ᄅᆞᆷ이ᄒᆞᆫ가지졔조의도
ᄅᆞᆯ닐워일홈을나타내오미네부친의원ᄒᆞᄂᆞᆫᄆᆞ음이라
ᄒᆞ시거ᄂᆞᆯ내ᄌᆞ운ᄉᆞ의잇셔의슐을공부ᄒᆞ더니마ᄎᆞᆷᄒᆞᆫ노
인을만나니도ᄒᆞᆫ슈염과아ᄅᆞᆷ다온용뫼표ᄌᆞᄒᆞ여신션의
풍치잇ᄂᆞᆫ지라날ᄃᆞ려닐너왈그ᄃᆡᄂᆞᆫ벼슬길의잇ᄂᆞᆫ사ᄅᆞᆷ
이라너년의ᄒᆞᆨ교의나아갈거시어ᄂᆞᆯ엇지글닑지아니ᄒᆞᄂᆞ뇨

ᄒᆞ거ᄂᆞᆯᄂᆡ소유ᄅᆞᆯ고ᄒᆞ고그셩명을물으니션ᄉᆡᆼ이ᄀᆞᆯ오
ᄃᆡ나의셩은공이니운남ᄯᅡ사ᄅᆞᆷ이라일즉소강졀의
황극슈법을어덧더니이졔그쉬맛당이ᄌᆞ의게젼ᄒᆞ리
라ᄒᆞ거ᄂᆞᆯᄂᆡ이인ᄒᆞ여이ᄯᅩ러도라와그슈법을시험ᄒᆞ니셰
셰ᄒᆞᆫ날이다맛ᄂᆞᆫ지라ᄂᆡ드ᄃᆡ여ᄀᆞᆯᄂᆡ러을ᄉᆡᆼ각을ᄂᆡ일시
공션ᄉᆡᆼ이ᄯᅩ날을위ᄒᆞ여과슈ᄅᆞᆯ풀어보니쳐음본읍
시취의ᄂᆞᆫ일흠ᄎᆞ례ᄉᆞ십지로ᄉᆡᆨ히고본ᄒᆞᆨ시취의ᄂᆞᆫ아홉지
로ᄉᆡᆨ히리라ᄒᆞ더니밋명년의삼ᄎᆞ응시ᄒᆞ미그일흠ᄎᆞ례
모다여합부졀이라ᄃᆞ시죵신길흉을졈복ᄒᆞ니날너
시되아모ᄒᆡ의향교의들고늠미구십일셕오두ᄅᆞᆯ먹은후
아무ᄒᆡ의공성이되여경ᄉᆞ로가고그후아모ᄒᆡ의벼ᄉᆞᆯᄒᆞ여
ᄉᆞ쳔ᄯᅡ의ᄒᆞᆫ고을원을ᄒᆞ고임소의잇ᄉᆞᆫ지두ᄒᆡ반의과

만ᄒᆞ여오고오십삼셰되던ᄒᆡ팔월십ᄉᆞ일츅시의맛당
이졍험의셔쥭을지나평ᄉᆡᆼ의급뎨ᄒᆞ지못ᄒᆞ고ᄯᅩᄒᆞᆫ
무ᄌᆞᄒᆞ리라ᄒᆞᆫ거ᄂᆞᆯ너ᄌᆞ초긔록ᄒᆞ여ᄎᆞ례로상고ᄒᆞ니그후
로미양시취의일홈ᄎᆞ례와ᄎᆞᆷ방ᄒᆞᆫ년죄모라공션ᄉᆡᆼ의
졍ᄒᆞᆫ바슈의버셔나지아니ᄒᆞ되다만늠미구십일셕오
두를먹은후의공ᄉᆡᆼ이되리라ᄒᆞ던말이맛지아니ᄒᆞ여겨
유칠십여셕을먹은ᄯᅢ의공ᄉᆡᆼ을보ᄒᆞ엿ᄂᆞᆫ지라너그우이의
심ᄒᆞ더니그후과연사ᄅᆞᆷ의논박ᄒᆞᆫ비되여공ᄉᆡᆼ의보ᄅᆡ믓ᄉᆞᄒᆞ
고그후졍묘년의닐러비로소공ᄉᆡᆼ의보ᄒᆞ니그졔야늠미먹
은쉬쳔후합ᄒᆞ여구십일셕오두라이러므로더옥진퇴
의명이잇다ᄒᆞ여도시구ᄒᆞᄂᆞᆫ비어본지라기시의공ᄉᆡᆼ으
로경ᄉᆞ의드러가머무런지일년만의남으로도라갈시

마춤운곡션ᄉᆡᆼ을ᄎᆞᄌᆞ셔하산츙의셔만난지라ᄒᆞᆫ방의ᄃᆡ좌ᄒᆞ
여삼쥬야를더닐ᄉᆡ니거동이담연ᄒᆞ야마치무심ᄒᆞᆫ사ᄅᆞᆷ곳
ᄒᆞ니운곡이무러왈뎌적범인이셩인지경의니르지못ᄒᆞᄂᆞᆫ바ᄂᆞᆫ
다만망녕된ᄉᆡᆼ각이셔로얼키미라이제그런ᄂᆞᆫ사ᄉᆞᆼ을안져시
되망녕된ᄉᆡᆼ각나믈얼호도못보리로다ᄒᆞ거ᄂᆞᆯ닉공션ᄉᆡᆼ의
슈로쎠고ᄒᆞ여왈영욕과ᄉᆞᄉᆡᆼ이졍ᄒᆞᆫ쉬잇ᄉᆞ니망샹을닉
여도쓸ᄃᆡ업ᄉᆞᆯ지니이러므로동심리아니ᄒᆞ엿심이라ᄒᆞ니
운곡이닉말을듯고우셔왈닉너를아로미호걸의사ᄅᆞᆷ인
가ᄒᆞ엿더니진ᄎᆞᆺᄒᆞᆫ낫범부로다ᄒᆞ거ᄂᆞᆯ닉그연고를므ᄅᆞ니운
곡왈사ᄅᆞᆷ이엇지졍ᄒᆞᆫ쉬업ᄉᆞ리오마ᄂᆞᆫ오직범인의게쉬
잇ᄂᆞ니극히어진사ᄅᆞᆷ은슈와팔ᄌᆞ의감히구속지못ᄒᆞ고극히
ᄉᆞ오나온사ᄅᆞᆷ도ᄯᅩᄒᆞᆫ구속지못ᄒᆞᄂᆞ니뎨이십변ᄉᆞ이의젹

공션싱의졍슈만밋고조곰도동념디아니ᄒᆞ니엇지범벽
아니리오ᄒᆞ거ᄂᆞᆯ너ᄯᅩ무러왈그리ᄒᆞ면슈를가히도망ᄒᆞ리
잇가ᄒᆞ니션시왈명과복이무비ᄌᆞ작이니녯글의닐은
말이심히ᄇᆞᆰ은지라우리불가셜법의글와ᄉᆞ시되공명
을구ᄒᆞ면공명을엇고부귀를구ᄒᆞ면부귀를엇고ᄌᆞ
식을구ᄒᆞ면ᄌᆞ식을엇고장슈를구ᄒᆞ면장슈를엇
으리라ᄒᆞ엿시니ᄃᆡ뎌망녕된말은셕가의큰경계시니
졔불보살이엇지망녕된거짓말노사ᄅᆞᆷ을속이시리요
ᄒᆞ거ᄂᆞᆯ너ᄯᅩ골오ᄃᆡ밍ᄌᆞ니ᄅᆞ사되구ᄒᆞᆫ즉엇ᄂᆞᆫ다ᄒᆞ시니이
ᄂᆞᆫ그몸의잇ᄂᆞᆫ거ᄉᆞᆯ니ᄅᆞ시미니인의와도덕은가히힘으로
구ᄒᆞ여엇으려니와공명과부귀ᄂᆞᆫ남의게잇ᄂᆞᆫ비니엇지
임의로구ᄒᆞ여엇으리오ᄒᆞ니운곡왈밍ᄌᆞ의말ᄉᆞᆷ이그르지

아니커날네스ᄉᆞ로그룻희셕ᄒᆞ엿도다뉵조의말ᄉᆞᆷ의닐넛
시되모든복이그ᄆᆞ음을ᄯᅥ나지아니ᄒᆞ니ᄆᆞ음을조ᄎᆞ셰도르
미갑동ᄒᆞ여동티아닐거시업다ᄒᆞ시니만일ᄆᆞ음을닷가
구ᄒᆞ면엇지ᄒᆞᆫ갓도덕인의ᄲᅮᆫ이리오ᄯᅩᄒᆞᆫ공명부귀도엇
을지니〻른바ᄂᆡ외쌍득이요만일몸을두루혀안ᄒᆞ으로
슈힝티아니ᄒᆞ고다만것ᄎᆞ로구ᄒᆞᆷ즉이니른바ᄂᆡ외로쌍
실ᄒᆞᆷ이라ᄒᆞ고인ᄒᆞ여무러왈공션싱이너의죵신을
졈ᄒᆞ엿시미그쉬엇더ᄒᆞ더뇨ᄒᆞ거ᄂᆞᆯᄂᆡ실노ᄢᅧ고ᄒᆞ니운곡
왈네스ᄉᆞ로혜아리건ᄃᆡ가히급졔ᄒᆞ염즉ᄒᆞ며ᄯᅩ가히아
ᄃᆞᆯ을나ᄒᆞᆷ즉ᄒᆞ냐ᄒᆞ거ᄂᆞᆯᄂᆡ오리싱각ᄒᆞ다가ᄀᆞᆯ오ᄃᆡ등
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ᄃᆡ져복샹이잇건ᄂᆞᆯ나ᄂᆞᆫ복이박ᄒᆞ고ᄯᅩᄒᆞᆫ
공과덕을ᄆᆞᆺ하복을두터이지못ᄒᆞ고겸ᄒᆞ여번요ᄒᆞᆷ

을견ᄃᆡ지못ᄒᆞ여사ᄅᆞᆷ을용납지아니ᄒᆞ고혹쟈조와지혜
로ᄡᅥ사ᄅᆞᆷ을덥누르며ᄆᆞᄋᆞᆷ이ᄀᆞᆽ으며ᄒᆡᆼ실이착ᄒᆞᆫ쳬ᄒᆞ야
사ᄅᆞᆷ을망녕되이말ᄒᆞ여가ᄇᆡ야이의논ᄒᆞ니이ᄂᆞᆫ모도복
의ᄒᆡ로온닐이라엇지과거ᄒᆞ염즉ᄒᆞ며ᄯᅩᄯᅩ히결어야초목
이무셩ᄒᆞ고물이ᄆᆞᆰ으면고기업다ᄒᆞᆫ거ᄂᆞᆯ나ᄂᆞᆫ그러리아니
ᄒᆞ여졍결ᄒᆞᆫ기ᄅᆞᆯ도요하ᄒᆞ며긔운이화ᄒᆞ여야능히만믈
을양휵ᄒᆞᄂᆞ다ᄒᆞᆫ거ᄂᆞᆯ나ᄂᆞᆫ그러티아니ᄒᆞ여ᄆᆡ양셩ᄂᆡ기ᄅᆞᆫ
도하ᄒᆞ며ᄌᆞᄋᆡᄒᆞᄂᆞᆫᄆᆞᄋᆞᆷ은ᄉᆡᆼ휵ᄒᆞᄂᆞᆫ근본이요잔인ᄒᆞᆫ
ᄆᆞᄋᆞᆷ은ᄉᆡᆼ휵지못ᄒᆞᆯ장본이어ᄂᆞᆯ나ᄂᆞᆫ그러티아니ᄒᆞ여
능히너거ᄉᆞᆯ니여사ᄅᆞᆷ을구졔티못ᄒᆞ며ᄯᅩ언어ᄅᆞᆯ만히ᄒᆞ
여긔운을모손ᄒᆞ고슐을도요하ᄒᆞ여졍신을소삭게ᄒᆞ고ᄯᅩ
밤을ᄉᆡ와안졋기ᄅᆞᆯ도요하ᄒᆞ여원긔ᄅᆞᆯ보젼티아니ᄒᆞ나

이ᄂᆞᆫ맛당이무ᄌᆞᄒᆞᆯ괴샹이요그나믄과악이오히려허다ᄒᆞᆫ
여내로혜지못ᄒᆞ노라ᄒᆞ니운곡왈이ᄂᆞᆫ은다만과거와ᄌᆞ
식만의논ᄒᆞᆯ비아니라셰샹의쳔금가산을진일자ᄂᆞᆫ일
평쳔금이ᄊᆞᆫ인물이오빅금가산을진일자ᄂᆞᆫ일평빅
금이ᄊᆞᆫ인물이오굴머죽을자ᄂᆞᆫ일평굴머죽을만ᄒᆞᆫ
인물이나하ᄂᆞᆯ이불과졔인물을ᄯᆞ라식이실ᄲᅮᆫ이라
엇지일호나다른의셔잇ᄉᆞ시리요ᄯᅩᄌᆞ식낫키로의논컨
ᄃᆡ빅ᄃᆡ를누릴덕이잇ᄂᆞᆫ자ᄂᆞᆫ일평빅ᄃᆡ의ᄌᆞ손이잇
셔집을보젼ᄒᆞᆯ거시오열ᄃᆡ를누릴덕이잇ᄂᆞᆫ자ᄂᆞᆫ열ᄃᆡ의
ᄌᆞ손이잇셔집을보젼ᄒᆞᆯ거시오슈삼ᄃᆡ를누릴덕이잇ᄂᆞᆫ
자ᄂᆞᆫ슈삼ᄃᆡ의ᄌᆞ손이잇셔집을보젼ᄒᆞᆯ거시오그ᄯᅳᆺ뢰져무
후ᄒᆞᆯ자ᄂᆞᆫ덕이지극히박ᄒᆞᆫ사ᄅᆞᆷ이라네이ᄆᆡ그ᄅᆞᆷ을알앗

시니이제로부터이젼과거못ᄒᆞᆯ상을곳쳐과거ᄒᆞᆯ긔상을만
들며무ᄌᆞᄒᆞᆯ상을고쳐유ᄌᆞᄒᆞᆯ긔상을만들지니이는네ᄆᆞ
음을고쳐힝ᄒᆞ기의잇ᄂᆞᆫ비니이후로ᄂᆞᆫ이젼날을두ᄅᆞ혀
부듸젹덕ᄒᆞ기를힘쓰며졍신을앗겨망녕되이허비다
아니믈힘쓸지니이젼의죵ᄌᆞ그ᄅᆞᆺᄒᆞᆫ날은어제쥭은사ᄅᆞᆷ
으로아라젼싱으로부치고이후ᄉᆞ는오날ᄉᆡ로이탄싱ᄒᆞᆫ
사ᄅᆞᆷ으로아라온갓날을다어질게힝ᄒᆞ면이는의리의몸
으로져싱ᄒᆞᆫ혬이니이의리의몸으로ᄡᅥ엇지하ᄂᆞᆯ을도로
혀지못ᄒᆞ리요ᄒᆞ거ᄂᆞᆯ너크게ᄭᆡᄃᆞ라그말을신힝ᄒᆞᆯᄉᆡ인
ᄒᆞ여젼일의지은허물을ᄆᆞ음ᄡᅥᆺ드려ᄂᆡ여낫ᄎᆞ치고치며ᄯᅩ
글을올녀하ᄂᆞᆯᄭᅴ고ᄒᆞ여몬져등과ᄒᆞ기를구ᄒᆞᆯ셰착ᄒᆞᆫ닐
삼쳔가지를힝ᄒᆞ여뎐지조죵의덕갑기를밍셰ᄒᆞ나

운곡이ᄯᅩ공과격이라ᄒᆞᄂᆞᆫ책을ᄂᆡ여날을쥬고날노ᄒᆞ
여곰ᄆᆡ일ᄒᆡᆼᄒᆞᄂᆞᆫ바를낫〃치긔록ᄒᆞᆯ셔착ᄒᆞᆫ날인즉
쥬ᄒᆞ나흘두고악ᄒᆞᆫ날인즉쥬ᄒᆞ나흘덜어쥬의다과
를계교ᄒᆞ게ᄒᆞ며ᄯᅩ쥰졔진언을ᄆᆞ곤ᄋᆞ쳐그녕험을밧게
ᄒᆞ나이후로죵일궁〃ᄒᆞ여더옥젼과ᄀᆞᆺ지아니믈셔ᄃᆞᆺᄒᆞᆫ
지라ᄌᆞ연착념ᄒᆞ고가다듬아어두온집속과은근ᄒᆞᆫ듸잇
셔도스ᄉᆞ로텬지귀신의죄를어들가두려ᄒᆞ며사ᄅᆞᆷ이날을
뮈워ᄒᆞ거나날을훼방ᄒᆞᆷ을만나도넉〃히용납ᄒᆞ여밧
ᄂᆞᆫ지라명년의니르러ᄒᆞ구교의나아가응시ᄒᆞ니공션ᄉᆡᆼ의
슈의ᄂᆞᆫ둘ᄌᆡ로섭ᄒᆞ리라ᄒᆞ엿더니지금의홀연이졔일노
섭ᄒᆞ엿시니그말이〃믜맛지아니ᄒᆞ미오ᄯᅩ가올회시의입격
ᄒᆞ나이ᄂᆞᆫ공션ᄉᆡᆼ의슈의업ᄂᆞᆫ비라이러므로더옥밋어ᄆᆞ

음가지오미동〻쵹〻ᄒᆞ나오히려의로ᄒᆡᆼᄒᆞ오미슌실치못
ᄒᆞ며몸을ᄃᆞᆺ그미글로오미만ᄒᆞᆫ지라혹착ᄒᆞᆫ닐을보아도
ᄒᆡᆼᄒᆞᆷ이날니지못ᄒᆞ며혹사ᄅᆞᆷ을구졔ᄒᆞ여도ᄆᆞ음의상
ᄒᆡᄌᆞ젹ᄒᆞ고혹ᄉᆞᄉᆞ로힘써착ᄒᆞᆫ닐을ᄒᆞ노라ᄒᆞ다가입으
로ᄂᆞᆫ그른말을만히ᄒᆞ며혹쳔셕의ᄂᆞᆫ죠심ᄒᆞ다가취ᄒᆞᆫ
후의방탕ᄒᆞ기도ᄒᆞ여죵이러ᄐᆞᆺᄒᆞᆫ허물이착ᄒᆞᆫ닐을
감ᄒᆞ미허송ᄒᆞᄂᆞᆫ날이만ᄒᆞᆫ지라이러므로착ᄒᆞᆫ닐이쉬ᄌᆞ
지못ᄒᆞ여긔ᄉᆞ년으로부터발원ᄒᆞ여셔으려긔묘년의닐르
러삼쳔가지착ᄒᆞᆫ닐이비로소완젼ᄒᆞᆫ지라그후경진년의
ᄃᆞ시아들구ᄒᆞᆯᄆᆞ음을ᄂᆡ여ᄯᅩ삼쳔가지착ᄒᆞᆫ닐을발원ᄒᆞ
엿ᄉᆞ더니신ᄉᆞ년의녀ᄅᆞᆯ나흔지라ᄀᆡ시의삼쳔가지닐을ᄒᆡᆼ
ᄒᆞᆯ젹의ᄒᆞᆫ가지식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로즉시긔록ᄒᆞ고녀의모친은

글을모로모로다만붓두겁의불러온거슬칠ᄒᆞ여착녁
일ᄌᆞ우희ᄶᅵᆨ으니혹가난ᄒᆞᆫ사ᄅᆞᆷ을구졔도ᄒᆞ며혹셔즘
ᄉᆞᆼ도ᄉᆞᆯ녀노ᄒᆞ니일、지나의혹열번이더ᄒᆞᆯ적이잇셔
시니계미년팔월의니ᄅᆞ러ᄆᆡ삼쳔가지착ᄒᆞᆫ날이찻ᄂᆞᆫ
지라구월십삼일부터또젼ᄉᆞ급졔ᄒᆞᆯ원을닐희여또일
만가지착ᄒᆞᆫ날을발원ᄒᆞᆯ셔병ᄉᆞᆫ년의니ᄅᆞ러과연급
졔ᄒᆞ고보려ᄒᆞ、히지현을ᄒᆞ여、실셰니공척ᄒᆞᆫ권을가져
일흠ᄒᆞ、되、치심편이라ᄒᆞ고ᄉᆞ벽의닐어나공ᄉᆞ를블셔
션악간의ᄒᆡᆼᄒᆞᆫ날을셰、이긔록ᄒᆞ、고밤이면상탁
을ᄯᅳᆯ의버리고향을픠워ᄒᆞ、놀리고ᄒᆞ、더니녀의모친이보
고문득열골을ᄶᅵᆼ긔여왈우리젼의집의이슬ᄯᅢ의
는셔로도아착ᄒᆞᆫ날을ᄒᆞ기로삼쳔가지슈희오리、지

아니ᄒᆞ여ᄎᆞᆺ거니와이제ᄂᆞᆫ발원ᄒᆞᆫ쉬일만가지오ᄯᅩ아ᄌᆞᆼ의힝ᄒᆞᆯ날이업ᄂᆞᆫ지라어나ᄯᆡ의그슈ᄅᆞᆯ쳐올고ᄒᆞ여셔로근심ᄒᆞ더니일〻은ᄂᆡᄭᅮᆷ의신인을만나일만가지착ᄒᆞᆫ날의쳐오기어려옴을말ᄒᆞ니그신인이왈굿ᄒᆞ여만가질를길리지아니ᄒᆞ여다만빅셩의구실감ᄒᆞᆫ날이족히일만가지착ᄒᆞᆫ날을당ᄒᆞ리라ᄒᆞ니이ᄂᆞᆫ보쳐현의젼답구실이ᄒᆞᆫ니랑의두푼삼니칠호ᄶᅵᆨᄒᆞᄂᆞᆫ법이어늘ᄂᆡ도임후의그슈ᄅᆞᆯ감ᄒᆞ여ᄒᆞᆫ푼ᄉᆞ리뉵호ᄶᅵᆨ으로졍ᄒᆞ여더니이날을니름이라심즁의ᄌᆞ못신인의과장ᄒᆞᆷ을의혹ᄒᆞ더니마초아운곡션ᄉᆡᆼ오되산으로조ᄎᆞ오거ᄂᆞᆯᄂᆡᄭᅮᆷ말을고ᄒᆞ여왈이날이맛당이밋엄즉ᄒᆞ냐ᄒᆞ니션ᄉᆡᆼ왈이ᄆᆞ음이진실노지극ᄒᆞᆫ션심이라만민이덕을밧아시니

다만이ᄒᆞᆫ날이가히만가지ᄅᆞᆯ당ᄒᆞ리라ᄒᆞ거ᄂᆞᆯ인ᄒᆞ여
관황을ᄂᆡ여ᄒᆞ여곰오ᄃᆡ산의나아가즁의무리일만을ᄌᆡᄒᆞ
여먹이게ᄒᆞ니라ᄯᅩ공션ᄉᆡᆼ의슈의닐은바오십삼셰의죽으리라
ᄒᆞ미니그ᄒᆡ의일즉긔도ᄒᆞᆫ비업스되마ᄎᆞᆷ니무양ᄒᆞ여이졔
나히뉵십구셰라네의명도는엇더ᄒᆞᆫ지모로거니와셜녕부
귀영화ᄅᆞᆯ당ᄒᆞ더라ᄒᆞ여도상희쵸ᄒᆞᆫ성각을먹고ᄯᅩ미
ᄉᆞ의슌ᄒᆞᆫᄯᆡᄅᆞᆯ당ᄒᆞ여도마치슌치아닌것ᄀᆞᆺ치ᄒᆞ며의식이
죡ᄒᆞᆫᄯᆡᄅᆞᆯ당ᄒᆞ여도구챠ᄒᆞᆫ성각을ᄒᆞ며살ᄅᆞᆷ이공졍ᄒᆞ
고ᄉᆞ랑ᄒᆞ더라ᄒᆞ여도항상공구ᄒᆞᆫ성각을먹고가셰놉고명
망이즁ᄒᆞᆯ지라도항상ᄂᆞᆺ고고쳔ᄒᆞᆷᄀᆞᆺ치ᄒᆞ며혹식이ᄌᆞ못
녁〻ᄒᆞ여도항상고루ᄒᆞᆷᄀᆞᆺ치ᄒᆞ여멀니조샹의덕을포장
ᄒᆞ며각가이부형의허물을덥고우흐로나라은혜ᄅᆞᆯ갑

고아리로졔집의복을지으며밧그로사ᄅᆞᆷ의급ᄒᆞᆫ거ᄉᆞᆯ건지고
안흐로몸의그ᄅᆞᆫ셩각을막을지니날마다그ᄅᆞᆫ거ᄉᆞᆯᄭᆡᄃᆞ르
면날마다허물을고치미오흐로나그ᄅᆞᆫ거ᄉᆞᆯᄭᆡᄃᆞᆺ지못ᄒᆞ면
인ᄂᆞᆫ고흐로의ᄆᆞ음을소기미요흐로나허물을고칠거시업
다ᄒᆞ면인ᄂᆞᆫ고흐로의공뷔이즈려지미니텬하의춍명ᄌᆞᆫ슈
ᄒᆞᆫ사ᄅᆞᆷ이젹지아니ᄒᆞ나권마ᄂᆞᆫ몸을ᄃᆞᆺ그미덕힝이ᄂᆞ루지못
ᄒᆞ고공업이널르지못ᄒᆞᆫ바ᄂᆞᆫ다만그리져러ᄒᆞ여일ᄉᆡᆼ을
보ᄂᆡ미나운곡션ᄉᆡᆼ의ᄀᆞᆯᄋᆞ친바명을고친다말이지극
히졍ᄒᆞ고지극히깁ᄒᆞ며지극히올코지극히공번된의
리니맛당이익이공부ᄒᆞ며힘ᄡᅥ힝ᄒᆞ고ᄉᆞᄉᆞ로보리
지말나ᄒᆞ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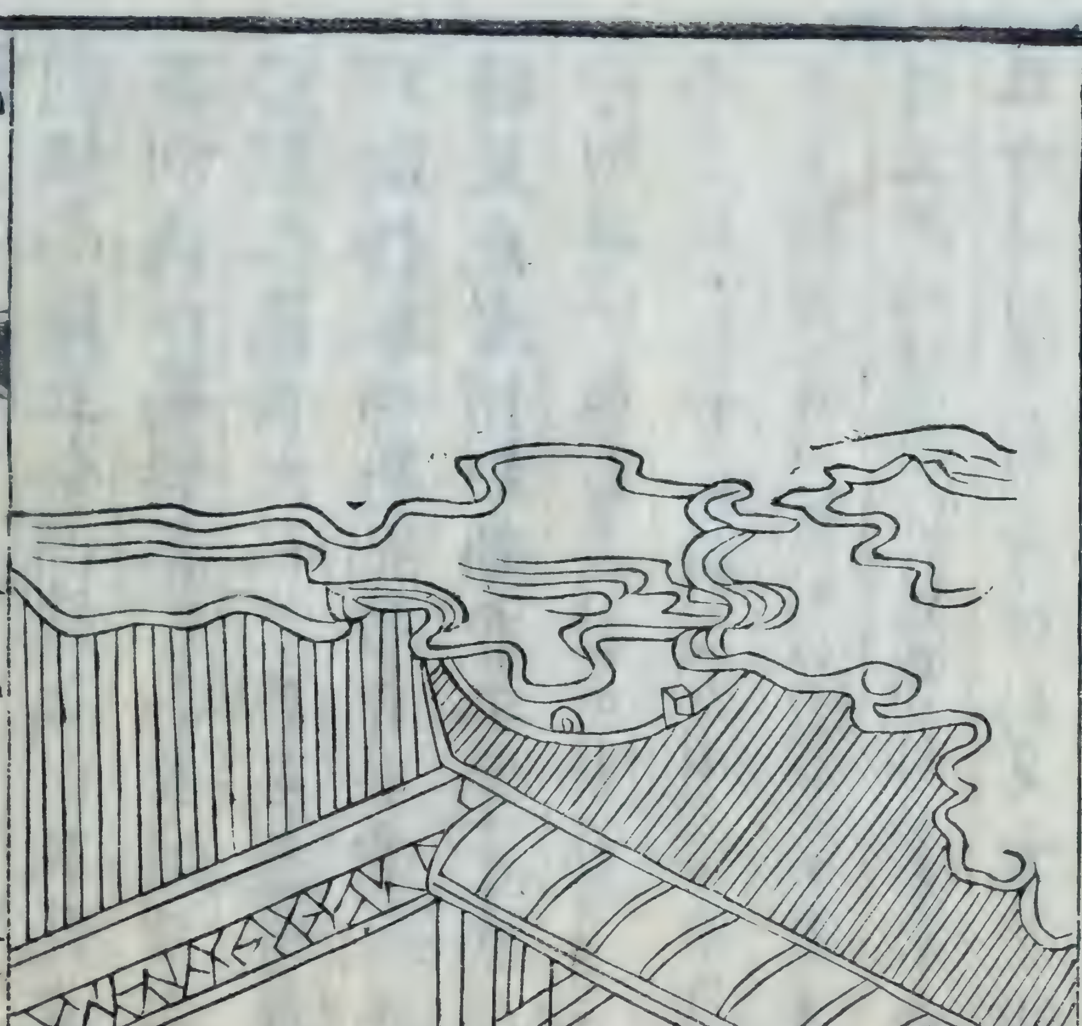
葉夢得

葉夢得在許昌値大水流浮無數公盡發常平所儲賑之全活數萬人獨棄小兒無由得救詢左右曰無子者何不收養曰人固所願但患歲豐年長卽來認去耳公卽立法凡災傷遺兒父母不得復認遂作空券印給於民凡得兒者明書於券付之凡救小兒三千三百餘後官至尙書子亦登第官居極品

셥몽득이허챵을직희엿더니흉년을당ᄒᆞ여ᄇᆡᆨ셩이뉴산ᄒᆞᄂᆞᆫ지라공이상평고의ᄊᆞ힌곡식을내여딘휼ᄒᆞ니살닌ᄇᆡᆨ슈만인이라이ᄯᆡᄇᆡᆨ셩이어린아희를브린적무슈ᄒᆞ여길희가득ᄒᆞ엿거ᄂᆞᆯ공이구졔코져ᄒᆞ되ᄒᆞᆯ길업ᄂᆞᆫ지라좌우ᄃᆞ려무러왈ᄌᆞ식업ᄂᆞᆫ사ᄅᆞᆷ이엇지거두어기ᄅᆞ지아니ᄒᆞᄂᆞ뇨좌우ᄃᆡ왈이진실노원ᄒᆞᄂᆞᆫ배오나시졀이풍

등ᄒᆞ고아희장셩ᄒᆞ면그부뫼도로ᄎᆞᄌᆞ갈가저허ᄒᆞ여슈
양티못ᄒᆞᄂᆞ니다공인의하령ᄒᆞ여왈ᄇᆞ린아희ᄂᆞᆫ그부뫼
ᄃᆞ시ᄎᆞᆺ지못ᄒᆞ리라ᄒᆞ고드ᄃᆡ여관가로문셔를만드러아
희거두어길르ᄂᆞᆫ빅셩을ᄒᆞ나씩주어징험케ᄒᆞ니이러
므로어린아희주ᄒᆞᆫ거시삼쳔삼ᄇᆡᆨ여명일너라그후의
공의벼슬이상셔의니르고그아들이ᄯᅩ등과ᄒᆞ여벼슬이국
품의니르니라

劉矩



劉矩爲雍丘令以禮義化民凡有爭訟者至常引於庭提耳訓誨以爲忿恚可忍公庭波不可入使歸更思訟者感悟輒各罷去大化其俗民德歸厚此化及獄訟者也夫聽理詞訟本以爲民乃有任法太過而又不知下情往往堅持至死者何如謙虛平恕之爲得情哉

뉴귀옹구현령이되여ᄉᆞ실시녜의로ᄡᅥᄇᆡᆨ셩을교화ᄒᆞ여므ᄅᆞᆺ정송ᄒᆞᄂᆞᆫ지잇스면ᄯᅳᆯ아래희ᄌᆞ가이잇그려달내여ᄀᆞᆯ오ᄃᆡ분ᄒᆞᆫ날이잇거든가히ᄎᆞᆷ을거시오관가ᄯᅳᆯ은가히오지아닐곳이니도라가ᄃᆞ시싱각ᄒᆞ면그르미업ᄉᆞ리라ᄒᆞ니일노인ᄒᆞ여송ᄉᆞᄒᆞᄂᆞᆫᄇᆡᆨ셩이저마다감동ᄒᆞ고ᄭᆡᄃᆞ라각〻흐터지니큰교화풍속이되고ᄇᆡᆨ셩의덕이두터운ᄃᆡ도라가니라

祝乾壽

祝乾壽爲崑山令有善政未嘗枉一人遠近稱之嘉靖時倭犯吳中圍崑山城五十餘日乾壽撫循守禦備至倭人至攻西門已入闉堵乾壽當矢石立樓櫓欲急發樓上板堅不可動忽有持斧至者自稱唐聖連發二板雜下火具壓以巨石倭死者甚衆遂退城得不陷乾壽求持斧者賞之不得其人土著人曰唐時有卜將軍名聖者葬城西南隅求其跡果然遂立祠土山後乾壽官至憲司

츅건슈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곤산 현녕이 되여 졍ᄉᆞ를 어질게 ᄒᆞ여 ᄒᆞᆫ 사ᄅᆞᆷ도 원통케 흠이 업ᄉᆞ니 원근이 칭찬ᄒᆞ더라 가졍 년간의 왜병이 드러와 곤산 셩을 에우니 이믜 오십여일이라 건쉬 막고 직희믈 지극히 ᄒᆞ더니 왜인이 셔문을 칠 시 이믜 문 밋희 니ᄅᆞᆫ지라 건쉬 시셕을 므릅ᄡᆞ고

셩누의올나판목을ᄲᅦ여도적을치고져ᄒᆞ되판이굿
어ᄲᅢ히지못ᄒᆞ더니홀연ᄒᆞᆫ사ᄅᆞᆷ이도치를들고ᄂᆞᆯ려
스ᄉᆞ로당셩이로라날ᄏᆞ르며년ᄒᆞ여두판목을ᄲᅢ히고
화구를셧ᄭᅥᆫ니치며돌노좃누르니왜인이죽은지무슈
ᄒᆞ더라이믜셩을보젼ᄒᆞ고그사ᄅᆞᆷ을ᄎᆞᄌᆞ샹쥬려ᄒᆞᆯ식
ᄃᆞ시보지못ᄒᆞᆯ지라그ᄯᅢ사ᄅᆞᆷ이고ᄒᆞ여왈당나라ᄯᅢ의복
장군이잇셔일홈이셩이니그무덤이셩셔남편의잇
다ᄒᆞ거ᄂᆞᆯ나아가ᄎᆞᄌᆞ니과연무덤이잇거ᄂᆞᆯ드ᄃᆞ여그산
우희ᄉᆞ당을셰우니라그후의건쥬벼ᄉᆞᆯ이ᄉᆞ헌의ᄂᆞ려
려ᄯᅥ라

崔廷

魏主以罪從者多逃乃制一人逋亡闔門充役光州刺史崔廷諫曰一人有罪延及一門則司馬牛受向魋之罰柳下惠嬰盜跖之誅豈不哀哉魏主從之

위나라ᄯᅢ의사ᄅᆞᆷ이죄의범ᄒᆞ여변방의츙군ᄒᆞᆫ군ᄉᆞ의무리나라역ᄉᆞ를괴로이녀여도망ᄒᆞᄂᆞᆫ지만흔지라조졍이근심ᄒᆞ여시법을지으되ᄒᆞᆫ사ᄅᆞᆷ이도망ᄒᆞ면그사ᄅᆞᆷ의온집사ᄅᆞᆷ을모다군역을밧게ᄒᆞ니광쥬ᄌᆞᄉᆞ최졍이간ᄒᆞ여왈ᄒᆞᆫ사ᄅᆞᆷ의죄로일문이죄를밧을진뎌ᄉᆞ마우의착ᄒᆞᆷ으로샹퇴의벌을밧으며뉴하혜의셩인으로도쳑의죄의연좌ᄒᆞᆯ지니엇지슬프지아니리잇가ᄒᆞ니조졍이그말을올히녀여그법을힝치아니ᄒᆞ니라

ᄉᆞ마우뉴하혜ᄂᆞᆫ샹퇴와도쳑의형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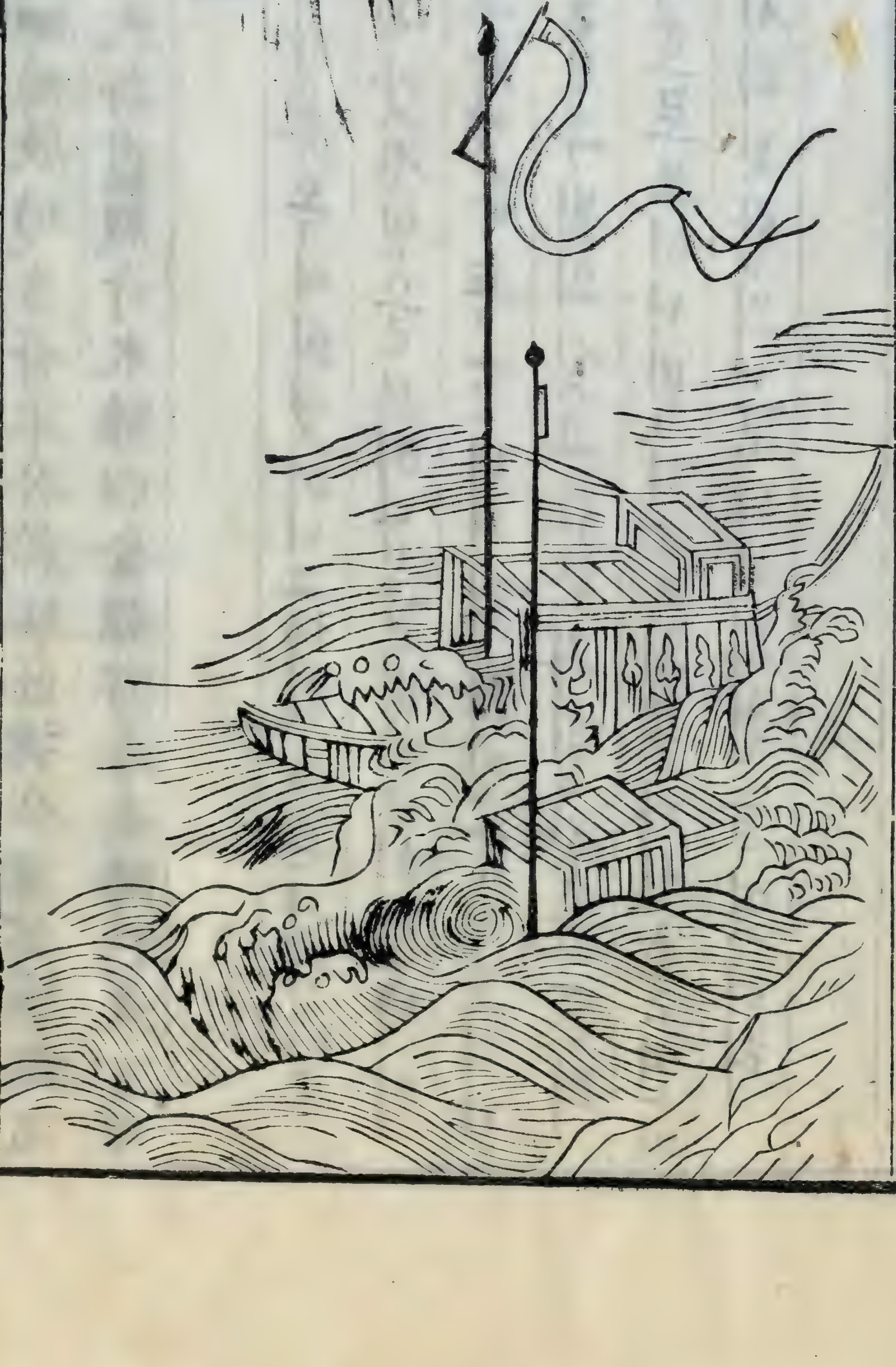
郭崇義

郭崇義鎭河陽於洛中造一大第凡千餘間皆以文梓爲梁花石鋪地穿池引水築山種樹周設亭臺無不備具約費白金五千錠次年被召還都暮抵其第秉燭周覽尚未及徧時朝會期促不容久駐餙罷少憩侵星而出旣朝復歸行至東都乃卒不復再至家人不能居轉售他人

곽숭의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하양절도ᄉᆞᄅᆞᆯᄒᆞ엿실시낙양ᄯᅡ희ᄒᆞᆫ큰집을지으니쳔여간이넘은지라모다문ᄎᆡ잇ᄂᆞᆫ남그로들보ᄒᆞ고화반셕으로ᄯᅳᆯ의ᄭᆞᆯ며물을ᄃᆞ리여뎐모슬만들고ᄒᆞᆰ을ᄊᆞ하뫼ᄅᆞᆯ만들며과화이초ᄂᆞᆫᄉᆞ면으로시므고뎡샤누각을팔방의버려시니아ᄅᆞᆷ답고화려ᄒᆞ여소입금은이누거만의ᄌᆞ가오니이ᄂᆞᆫᄇᆡᆨ셩을침학ᄒᆞ여담ᄒᆞᆫ진물이라그이듬ᄒᆡ의조뎡이부ᄅᆞ시미경ᄉᆞ로올나갈ᄉᆡ뎌녁노의그집

의ᄃᆞ〻르니날이〻미져문지라촉불을들고젹이보라가
입조ᄒᆞᆯ긔약이촉박ᄒᆞᆷ으로오리지완티못ᄒᆞ여젹이쉬고ᄉᆞ
벽의나려나길의오ᄅᆞ니그집의모양을치보지못ᄒᆞ엿더라이
믜조회ᄒᆞ고도라오다가즁노의셔쥭으니그집의ᄌᆞ시니르지
못ᄒᆞ고그후집사ᄅᆞᆷ이ᄯᅩᄒᆞᆫ능히진이지못ᄒᆞ여타인의게
도라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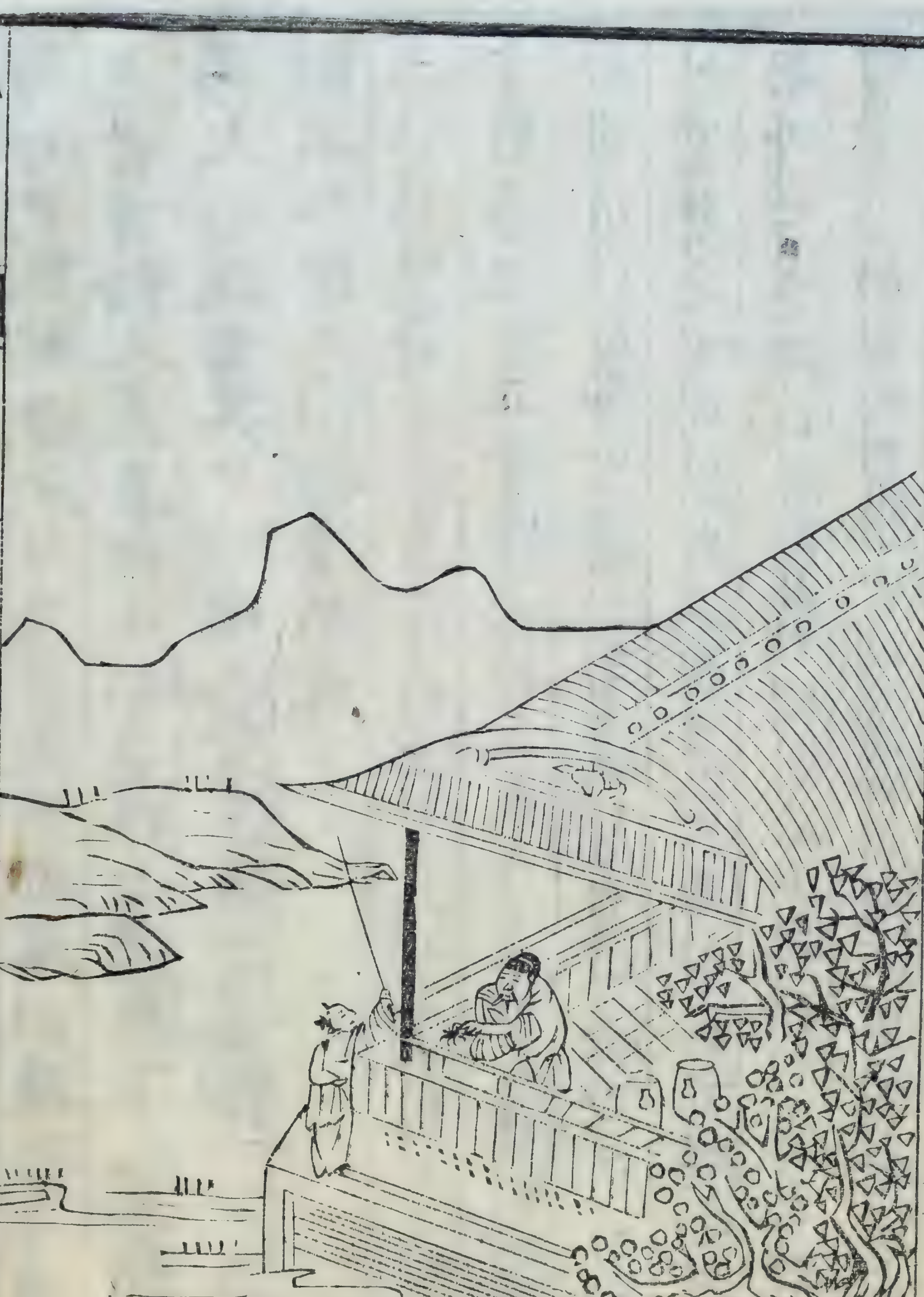
韋公幹



韋公幹爲瓊州牧瓊多奇木公幹驅匠採伐鞭撻橫施及離任具二大舟盡載奇木雜以金銀浮海而歸行未百里二舟俱沒

위공간이경쥬목이되엿더니그ᄯᅡ희됴흔남기만ᄒᆞᆫ지라이의온갓장인을브려남글버힐ᄉᆡ편박이낭쟈ᄒᆞ고쥬야독촉ᄒᆞ더니밋과만ᄒᆞ여도라갈졔그나무를두ᄇᆡ의싯고금은과힝장을ᄒᆞᆫ듸실어ᄇᆡ타ᄒᆞ로오더니ᄇᆡᆨ니를치못가셔홀연이두ᄇᆡ일시의ᄇᆞ람의블니여파션ᄒᆞ엿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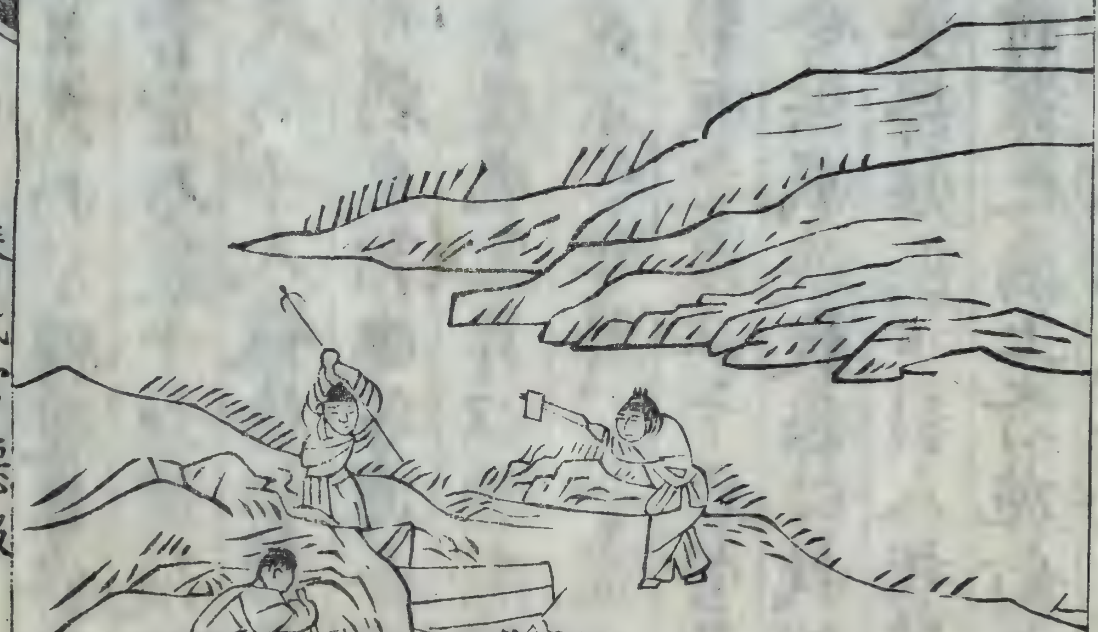
陳潔



蜀御史陳潔很戾自恣其浚刑獄專以潑巧爲能每月斷死者百餘人夏暑憩水亭見蟢子懸絲下引手接之卽化爲大蜘蛛嚙其中指痛入骨裏遂拂落階下化爲厲鬼怒詬不已潔乃以指潰而死

쵹나라어ᄉᆞ벼슬ᄒᆞᆫ진결이모질고ᄉᆞ오나와옥ᄉᆞ를결단ᄒᆞ미공교ᄒᆞ고각박ᄒᆞ기로ᄂᆞᆼᄉᆞ를삼으니ᄆᆡ월의죽인지ᄇᆡᆨ여인이라맛ᄎᆞᆷ더위를당ᄒᆞ여슈각의셔피셔ᄒᆞ더니ᄒᆞᆫ젹은버레잇셔손의ᄃᆞ으며즉시화ᄒᆞ여큰거믜되여손가락을무니아ᄅᆞᆷ프기ᄲᅧ의ᄉᆞ모차져린지라급히ᄯᅥᆯ쳐셤돌아래ᄯᅥ러지며화ᄒᆞ여흉ᄒᆞᆫ귀신이되여진결을보며셩내여ᄭᅮ짓더니진결이일노인ᄒᆞ여손가락이ᄡᅥᆨ어죽으니라

宋昇



政和初宋昪為西京轉運專修西內語同列曰速成此役賞可立得宮室乃衰十六里殿宇丹漆需牛骨和灰不給城外有五代數千人冢幹官韓容獻計發掘焚骨應用宋昪然之成州刺史郭璉等迎合其意運判孫旣獨以為不可引疾罷去役成宋昪以功除顯謨學士名為殿中監而卒韓容繼死不一年昪妻子盡死郭璉疽發於臀有骨不可坐鑿以藥取之落三十六骨乃死孫旣病絶至太山府獄吏勒入令供滅族狀孫曰我何罪殿上厲聲曰汝發洛陽冢幸賞安得辭廡下引人相質身荷鐵枷有卒持鐵扇視其面時時揮之扇上皆施釘血流被體乃宋昪也孫歷擧去官狀昪屈伏孫夏生

졍화년간의송승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셔경젼운시되여셔

궐을즁슈ᄒᆞᆯ식동뇨ᄂᆞᆫ려날녀왈이역ᄉᆞ를슈이맛초면상
을밧으리라ᄒᆞ여쥬야동역ᄒᆞᆯ식젼각의단쳥ᄒᆞ믹칠ᄒᆞᄂᆞᆫ
졔구의쇠ᄲᅢ틔온가릐만히드ᄂᆞᆫ지라창졸의구ᄒᆞ미엇기어
려오믈근심ᄒᆞ더니간역ᄒᆞᄂᆞᆫ관원한용이계교를드려
왈셩밧긔오린고총슈삼쳔이잇ᄉᆞ니그ᄲᅢ를파ᄡᅳ미됴타
ᄒᆞ거ᄂᆞᆯ송승이그말을올히녁여그ᄃᆡ로ᄒᆞᆯ식셩쥬쟈ᄉᆞ곽
년이ᄯᅩᄒᆞᆫ그ᄯᅳᆺ을맛초와셜니거힝ᄒᆞᄂᆞᆫ지라운판벼
ᄉᆞᆯᄒᆞ엿ᄂᆞᆫ손황이홀노불가타ᄒᆞ여벼ᄉᆞᆯ을ᄇᆞ리고가니
라이믜역ᄉᆞ를맛초미송승이그공으로현모ᄒᆞᆨᄉᆞ젼즁감
벼ᄉᆞᆯ을ᄒᆞ엿더니즉시쥭고그쳐지ᄒᆞᆷᄭᅴ쥭으며한용이ᄯᅩ
이어쥭고곽년은듕풍으로창구의ᄲᅢ박여안ᄶᅬ모ᄉᆞᄒᆞ고
약을부쳐ᄲᅧᆨ여ᄂᆡ여ᄲᅢ삼십뉵ᄆᆡ를ᄲᅦ히고쥭으니라그

후의손황이병들어죽은지라그혼이틱산부의니르니귀
졸이쇠어드리며지촉ᄒᆞ여멸족ᄒᆞᄂᆞᆫ드짐을올니라ᄒᆞ
거ᄂᆞᆯ손황이무죄ᄒᆞᆷ을고ᄒᆞᆫᄃᆡ쳔샹의셔소ᄅᆡᄅᆞᆯ놉
혀왈사ᄅᆞᆷ의무덤을파고상을도모ᄒᆞ니엇지죄ᄅᆞᆯ면
ᄒᆞ리오ᄒᆞ고읠졀랑아ᄅᆡ로셔ᄒᆞᆫ사ᄅᆞᆷ을쯔어ᄂᆡ여면질케
ᄒᆞ니그사ᄅᆞᆷ이목의쇠칼을쓰이고귀졸이쇠부치로얼골
을쳘삭그부치의쇠모ᄉᆞᆯ만히박아치ᄂᆞᆫ곳마다피흐ᄅᆞ녀
일신의가득ᄒᆞᆫ거ᄂᆞᆯ조세이보니이곳송승이라손황이
이의기시말나ᄂᆞᆫᄃᆞᆺ가못ᄒᆞ여벼ᄉᆞᆯᄇᆞ리고도라가던ᄉᆞ[illegible]ᄅᆞᆯ
일〻히고ᄒᆞᆫ니송승이굴복ᄒᆞᄂᆞᆫ지라손황은무죄다ᄒᆞ
여회싱ᄒᆞ니라

嚴延年

漢河南太守嚴延年爲政陰鷙酷烈曲法深文冬月論囚
流血數里河南號爲屠伯初延年母從東海來至洛陽適
見報囚母大驚止都亭不肯入府延年免冠謝罪親爲母
御乃入方畢正臘謂延年曰天道神明人不可獨殺吾不
意當老見壯子被刑戮也行矣去汝東歸掃除墓地以待
汝遂去未幾爲府丞上書驗得怨望誹謗數事坐法棄市

한나라 하람 태슈 엄연년이 졍ᄉᆞ홈이 음특ᄒᆞ고 ᄉᆞ오나오
며 밍녈ᄒᆞ고 혹독ᄒᆞ며 법졔ᄅᆞᆯ 궁극히ᄒᆞ며 눌문을
각박히ᄒᆞ니 일즉 납월의 죄인을 ᄃᆞᄉᆞ리미 사ᄅᆞᆷ 죽인
피흘녀 슈리ᄅᆞᆯ 적시이니 하람 사ᄅᆞᆷ이 니ᄅᆞ되 길ᄅᆞᆯ 사ᄅᆞᆷ도
히ᄂᆞᆫ ᄇᆡᆨ졍이라 ᄒᆞ더라 쳐음의 연년의 모친이 동히
로 좃ᄎᆞ와 낙양의 니ᄅᆞ러 마ᄎᆞᆷ 이러ᄐᆞᆺ 치죄ᄒᆞᆷ을 보

고도령의머믈고즐겨고을의드러오지아니ᄒᆞᄂᆞᆫ지라연년이
나아가관을버셔샤죄ᄒᆞ고친히그모친을뫼셔드려왓더
니겨유령조ᄅᆞᆯ디ᄂᆡ고연년ᄃᆞ려닐너왈텬되신명ᄒᆞ시니
사ᄅᆞᆷ을ᄒᆞᆯ노죽이미가치아니ᄒᆞᆫ지라ᄂᆡ노경을당ᄒᆞ여쟝
셩ᄒᆞᆫ아ᄃᆞᆯ이형벌의죽으믈볼줄ᄯᅳᆺ아니ᄒᆞ엿노라ᄒᆡᆼ
ᄒᆞᆯ지어다너ᄅᆞᆯᄇᆞ리고동으로도라가분묘ᄅᆞᆯ쓸고네ᄒᆡᆼ
상을기ᄃᆞ리、라ᄒᆞ고ᄃᆞ려갓더니오리지아니ᄒᆞ여마을아
젼이조령의고ᄒᆞ되연년이원망ᄒᆞ고비방ᄒᆞ다ᄒᆞ여
거저의버힌ᄇᆡ되니라

邵知府

嘉靖中郡守邵某機警有小才多佃魚於民詭稱給餉暫借銀充庫令掾吏持券遍貸富民實盡乾沒無償及歸橐充盈田園甲第炫耀一時一日造石坊賀者塡門方出送客坊石墮下壓死

가졍년간의군슈소뫼긔경ᄒᆞ고젹은ᄌᆡ조잇셔ᄇᆡᆨ셩을침노ᄒᆞᆯ시속여니로ᄃᆡ상ᄉᆞ의졈고맛기로잠간ᄇᆡᆨ셩의금은을빌어고ᄅᆞᆯ치오리라ᄒᆞ여아젼으로ᄒᆞ여곰문권을만들어두루부민의ᄌᆡ물을ᄯᅮ어드리니기실은ᄉᆞᄉᆞ로가지미라밋도라갈시낭탁이가득ᄒᆞ고젼원과졔ᄐᆡᆨ이일셰의회쟈ᄒᆞ더라일〻은돌을ᄃᆞ드마문의차면을만들엇더니맛초아손을보ᄂᆡ노라문의나올시차면돌이업더져인ᄒᆞ여눌니여죽으니라

張寶

張寶知成都有華陽李尉妻美貌擅名蜀中寶欲私之徧
託尼姑奶子密諭此意久之妻亦有心而李尉適以贓敗
寶因劾奏送獄治罪竄嶺外死於路寶厚賂尉母強而娶
之歡樂不捨無何婦病恍惚見李尉在傍未幾死寶亦得
病夢婦告曰妾感公恩不敢不報尉已訴於上帝旦夕取
公若潑居未必得便苟或輕出必爲所執寶覺而誌之一
日暮坐遙見堂下竹間有一紅袖招之意謂尉妻偶忘其
告疾趍急赴乃尉也毆寶罵曰你這賊子不以紅袖招搖
汝肯來乎良久口鼻出血倒地而死

장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셩도의자ᄉᆡ되엿더니그부ᄂᆡ화양현골을
현위니모의쳐아ᄅᆞᆷ다온ᄌᆞ식이촉즁의쳔명ᄒᆞᄂᆞᆫ지라
장뵈ᄉᆞ통코져ᄒᆞ여두루니고와미파ᄅᆞᆯ시겨가만이ᄯᅳᆺ으로달

녀니이믜날이오린지라위쇄또ᄒᆞᆫᄆᆞ음의허락ᄒᆞ엿더니
마초아니위젹은죄의범ᄒᆞ엿거ᄂᆞᆯ뵈인ᄒᆞ여조졍의알외
고하옥치죄ᄒᆞ여멀니극향보ᄂᆡ니가ᄂᆞᆫ가길의셔죽은지
라장뵈이의후ᄒᆞᆫ회뢰로ᄡᅥ니위의어미ᄅᆞᆯ달ᄂᆡ고위의쳐
ᄅᆞᆯ억지로취ᄒᆞ여쥬야로즐기더니오ᄅᆡ지아니ᄒᆞ여그계집
이홀연이병을엇어누엇실ᄉᆡ황홀즁의뎨지아비니위
져ᄉᆡᆨᄒᆡ잇거ᄂᆞᆯ크게놀나인ᄒᆞ여죽고장뵈또병이들어누엇
더니ᄭᅮᆷ의그계집이닐너ᄀᆞᆯ오ᄃᆡ쳡이공의은혜ᄅᆞᆯ감젹
ᄒᆞ여아니고ᄅᆡ못ᄒᆞᄂᆞ니ᄂᆡ위이믜샹뎨ᄭᅴ하소연ᄒᆞ엿시
ᄆᆡ오ᄅᆡ지아니ᄒᆞ여공을잡힐지라만일깁히숨어잇스
면화ᄅᆞᆯ면ᄒᆞ려니와혹가ᄇᆡ야이나온즉필경잡힌ᄇᆡ
되리라ᄒᆞ거ᄂᆞᆯ뵈놀나ᄭᆡ여상히ᄯᅧᆼ심ᄒᆞ고나오지아니ᄒᆞ

더니일〻은황혼시의멀니보니당아리ᄃᆡ슈풀ᄉᆞ이의홀
연계집의붉은옷ᄉᆞ미뵈며손쳐부르거ᄂᆞᆯ뵈ᄆᆞ음의혀오
되그계집이온가ᄒᆞ여그니르면말은싱각지아니ᄒᆞ고급히
나와ᄀᆞᆺ가이본즉이의니워라장보ᄅᆞᆯ잡아어즈러이치
며ᄉᆞ구지져왈너이도적놈아니붉은옷스로부르지아니ᄒᆞ
면네엇지나오리요ᄒᆞ고모라가니장뵈이의졍신이혼미
ᄒᆞ여이목구비로피ᄅᆞᆯ흘니고ᄯᅩ히것구러져쥭으니라

李緒

李緒知永安軍時大盜方起緒恐及禍乃薦范釧代己於是釧知永安緒遂解任未幾盜破永安范釧擧家遇害又未幾李緒改調臨安路逢強盜亦擧家遇害

니셔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영안군을ᄃᆞᄉᆞ릴서이ᄯᅴ의뎐해보야ᄒᆞ르어즈러워그곤쳐의큰도젹이니러나ᄂᆞᆫ지라니셰화의밋ᄎᆞᆯ가두려범형으로ᄡᅥ조졍의쳔거ᄒᆞ여졀ᄅᆞᆯ딕신ᄒᆞ게ᄒᆞ니이의범형이영안의도임ᄒᆞ고니셔ᄂᆞᆫ벼ᄉᆞᆯ을갈아도라갓더니오리지아니ᄒᆞ여도젹이영안을과ᄒᆞ니범형의일개모다히ᄅᆞᆯ만낫더라그후오리지아니ᄒᆞ여니셰ᄯᅩ벼ᄉᆞᆯ을고쳐님안으로갈ᄉᆡ길의셔강도ᄅᆞᆯ만나일실이ᄯᅩᄒᆞᆫ히ᄅᆞᆯ닙으니라

梁緯

孝直漢景帝時爲長安令志性清慎政聲遠聞所乘馬日行五百里雍州刺史梁緯與帝連婚强索其馬不獲密搆人誣直受贓下獄直使人告妻子曰刺史陰謀欲奪我馬汝等幼弱未能伸雪我死可將紙筆置棺中以便奏白果死獄中家人如所囑後旬日帝大會羣臣直於殿前上表曰臣少忝官途頗彰清慎不謂刺史梁緯心縱貪婪勢連內戚欲臣所畜之馬加臣枉死之刑上訴皇天許臣雪冤用敢以聞并梁緯不法二十一條粘狀尾景帝覽表訖忽不見甚以爲異詔收梁緯下獄勘詰枉殺孝直及諸款事事不虛詔將梁緯往孝直墓前斬而祭之追贈直尚書郎時人爲之語曰莫言鬼無形杜伯射宣王莫言鬼無身孝直訟生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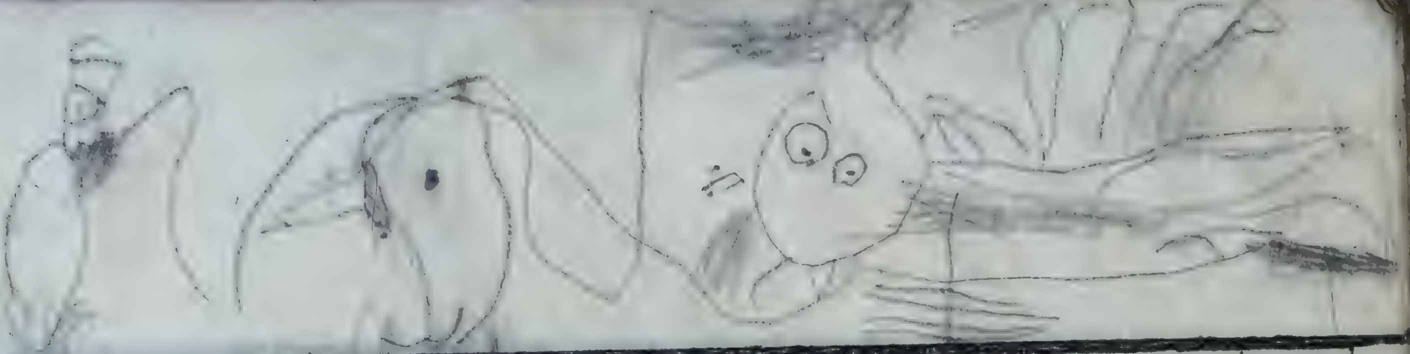
효직이ᄂᆞᆫ한경졔셕사ᄅᆞᆷ이니장안녕이되여셩품과졍
셔ᄆᆞ러고삼가니치젹이원근의들니더라다ᄂᆞᆫ말이〻셔일〻
의오빅니ᄅᆞᆯ힝ᄒᆞᄂᆞᆫ지라옹쥬쟈ᄉᆞ낭의ᄂᆞᆫ황졔의인친
으로위권을유셰ᄒᆞ여그말을구쳥ᄒᆞ다가엇지못ᄒᆞ고가
만이죄ᄅᆞᆯ얽어어효직을모함ᄒᆞ여옥의ᄂᆞ리우니효직이
사ᄅᆞᆷ을부려그쳐ᄌᆞ의게고ᄒᆞ여왈쟈ᄉᆞ낭의ᄂᆡ말을아스려
ᄒᆞ여가만ᄒᆞᆫᄯᅢ로날을쥬이려ᄒᆞ니너희어리고약ᄒᆞ여가
히셜원치못ᄒᆞᆯ지라ᄂᆡ쥭은후관속의지필을너흐라ᄒᆞ니
맛당이상소ᄒᆞ여셜원ᄒᆞ리라ᄒᆞ고인ᄒᆞ여옥즁의셔쥭으
니집사ᄅᆞᆷ이그말ᄃᆡ로ᄒᆞ엿더라그후슈일의샹이크게군신을
조회ᄒᆞ실ᄉᆡ효직이젼아래희잇셔표ᄅᆞᆯ올니〻기표의왈신이
여러셔환노의모쳠ᄒᆞ여ᄌᆞ못쳥신ᄒᆞᆫ일홈이잇ᄉᆞᆸ더니

옹쥬자ᄉᆞ냥의담심이무염ᄒᆞ며ᄂᆡ칙의형셰ᄅᆞᆯ밋고신의말을아스려ᄒᆞ여의미히신을쥭엿기로황뎐의할와신의셜원ᄒᆞᆷ을허ᄒᆞ실ᄉᆡ감히ᄡᅥ알외며겸ᄒᆞ여냥의의불법ᄒᆞᆫ죄이십일조ᄅᆞᆯ쳡변ᄒᆞ여알외ᄂᆞ이다ᄒᆞ엿거ᄂᆞᆯ샹이표ᄅᆞᆯ보실ᄉᆡ효직이홀연간ᄃᆡ업ᄂᆞᆫ지라샹이크게긔이히넉이샤냥위 이하옥ᄒᆞ고힐문ᄒᆞ시니ᄉᆞ〻이헛ᄃᆡ지아닙지라됴셔ᄒᆞ샤냥위ᄅᆞᆯ가져효직의무덤압희나아가그머리버혀티졔ᄒᆞ고효직으로상셔랑을츄증ᄒᆞ시니이셕사ᄅᆞᆷ이말ᄒᆞ여ᄀᆞᆯ오ᄃᆡ극신의형용이업다말ᄒᆞ지말나두빅이션왕을ᄲᅩ앗시며극신의몸이업다말ᄒᆞ지말나효직이산사ᄅᆞᆷ을송ᄉᆞᄒᆞ엿다ᄒᆞ더라

許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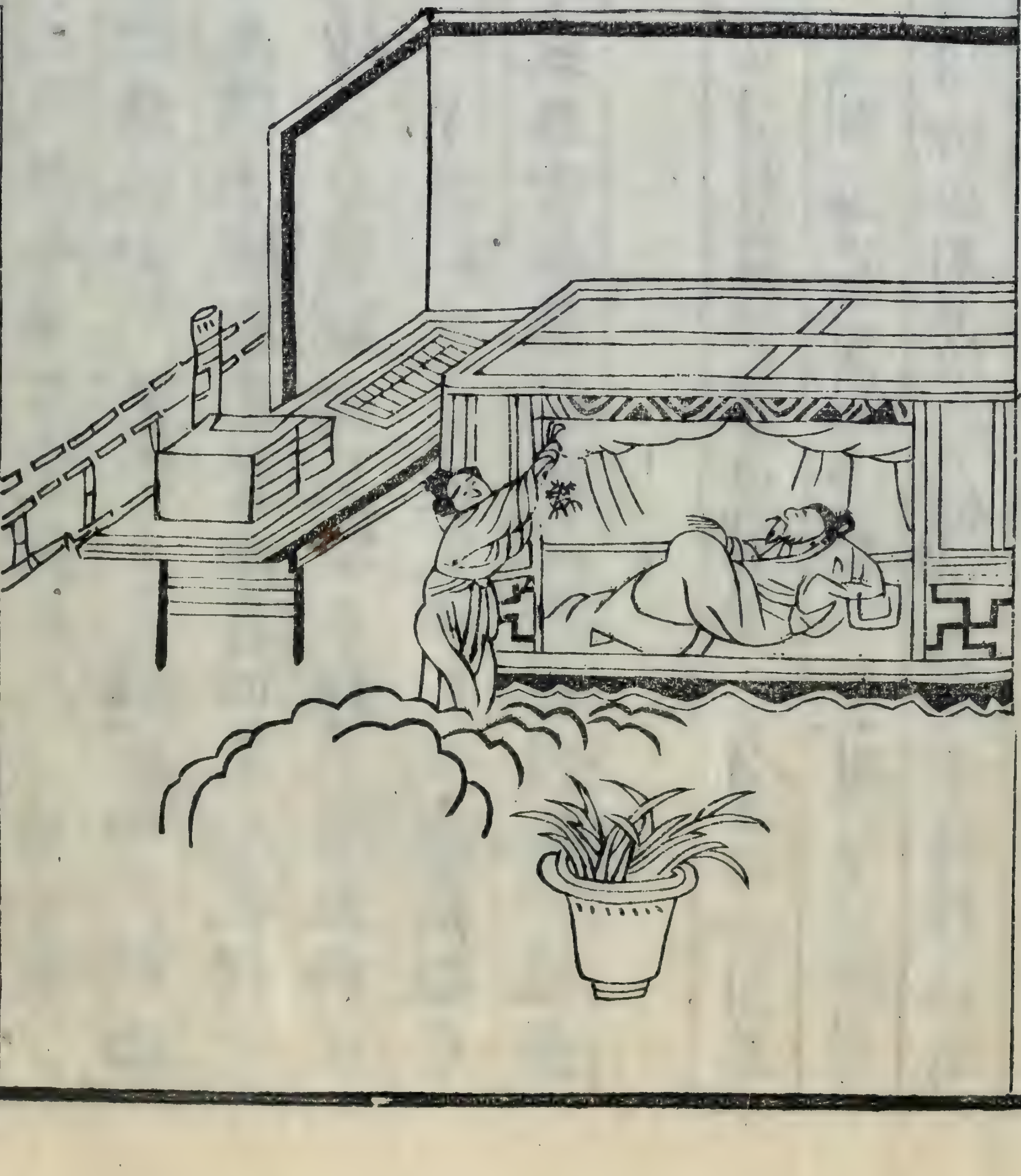
許某於順治四年從大兵入廣遂授一令是時聲教初敷
新附之民在城中者皆遵新制而山鄉村民多不剃髮適
兵楨擒解長髮百姓十四名其實皆愚民非強盜也許某
即以盜申解帥府幷殺之殺之時當正午刻是日也許家
眷來署未至縣治百餘里乃遇眞盜罄掠行李亦殺男女
十四口恰在午時許某口述其事於諸生黃建等彼時黃
建亦爲廣東學官

허외슌치ᄉᆞ년의ᄃᆡ병을조ᄎᆞ광동ᄯᅡ희드러갓더니인ᄒᆞ여
ᄒᆞᆫ현령을ᄒᆞ엿더라 이ᄯᅢ의왕홰쳐음으로힝ᄒᆞᆯ시ᄅᆞ로붓
ᄌᆞᆺᄂᆞᆫᄇᆡᆨ셩이셩즁의잇ᄂᆞᆫᄌᆞᄂᆞᆫ식법을ᄌᆞᆺᄎᆞ시되산곡사ᄅᆞᆷ
과향촌ᄇᆡᆨ셩은오히려머리ᄅᆞᆯᄶᅡᆨ지아니ᄒᆞ엿더니 맛ᄎᆞᆷ군
시잇셔머리ᄶᅡᆨ지아니ᄒᆞᆫᄇᆡᆨ셩십ᄉᆞ명을잡아오니이ᄂᆞᆫ



다날모로는우민이오나라반ᄒᆞ는도적이아니어ᄂᆞᆯ허뫼
위려으로도적이라ᄒᆞ여슈부의보내여모다쥭이니이ᄯᅢ
는졍히오시되엿더라이날허모의ᄂᆡ힝이고을노올ᄉᆡ그
고을의못밋츰을빅여리즈음ᄒᆞ여홀연이강도를만나
힝장을다아이고남녀십ᄉᆞ인이적슈의쥭으니그ᄯᅢ는
ᄯᅩᄒᆞᆫ오시라졍히십ᄉᆞ명빅셩쥭이던그날오시와ᄒᆞᆫ
날ᄒᆞᆫ시오인명슈도ᄯᅩᄒᆞᆫ가지라허뫼그날을셔셩황
건등ᄃᆞ려말ᄒᆞ니기시황건이광동후관으로이날을
ᄌᆞ셰히젼ᄒᆞ니라

狄知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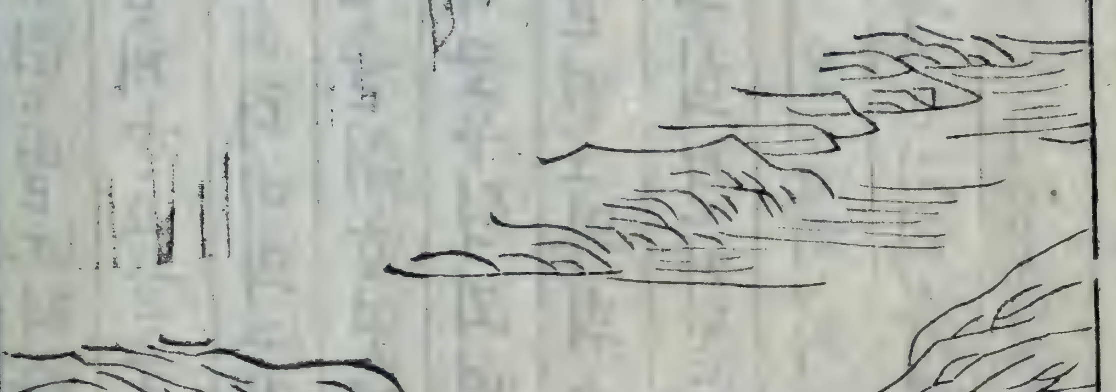


溧陽狄某任雲南定遠縣令縣有富翁死其妻擁貲數萬叔欲爭之訟於縣密囑曰即判斷以半爲酬狄拘其嫂酷刑拷訊至鋏釘釘足熱水澆乳悉奪所有四萬金狄得二萬嫂賫恨以死狄歸一日晝寢忽見婦手持小團魚掛床上未幾遍體生疽如團魚狀以手按之四足俱動痛徹骨髓晝夜呼號踰年死五子七孫俱生此疽而歿餘一孫無立錐之地矣

뉼양사ᄅᆞᆷ젹모ᄂᆞᆫ운남졍원현령이되엿실ᄉᆡ그고을의부민이잇더니이믜죽고그쳐홀노잇셔누만금을진혓ᄂᆞᆫ지라그부민의아우잇셔형슈의ᄌᆡ물을ᄲᅢ아스랴ᄒᆞ야관가의송ᄉᆞᄒᆞᆯᄉᆡ가만이젹모의게말을드려닐오ᄃᆡ그ᄌᆡ물을아ᄉᆞᆫ후분반ᄒᆞ여드리리라ᄒᆞ니젹뫼크게깃거과부ᄅᆞᆯ

잡아가두고독ᄒᆞᆫ형벌노져ᄌᆔ어무ᄅᆞᆯ셕쇠모ᄉᆞᆯ발이박
아움죡이지못ᄒᆞ게ᄒᆞ고물을쓰려졋ᄆᆞᄉᆞᆷ의부으니그ᄎᆞᆷ
혹ᄒᆞᆷ이불인견이라이의그가산ᄉᆞ만금을몰슈이달
ᄎᆔᄒᆞ여젹뫼그반을ᄎᆔᄒᆞ엿더라일노인ᄒᆞ여그과부한
을품어죽으니라그우젹뫼벼ᄉᆞᆯ을갈고도라와이ᄅᆞ〻
은낫잠자더니홀연그과뷔손의둥구러ᄒᆞᆫ물고기ᄅᆞᆯ
가져젹모의상우희걸거ᄂᆞᆯ씨여고이히너겻더니오
리지아니ᄒᆞ여젹뫼일신의그고기모양으로죵긔나니
알프기골슈의ᄉᆞᄆᆞᆺᄂᆞᆫ지라슈년을호통ᄒᆞ다가죽고ᄃᆞ
셧아ᄃᆞᆯ과일곱손지ᄯᅩᄒᆞᆫ그죵긔로이어죽고다만ᄒᆞᆫ손
지잇셔뉴리ᄆᆞ걸ᄒᆞ니라

鄭清臣



宋鄭淸臣爲槐里令虐使小民任滿歸民遮道唾罵淸臣以部民侮長官奏聞眞宗曰爲政在得民心民心如此爾政可知遂坐貶

송나라뎡쳥신이괴리현령을ᄒᆞ엿실ᄉᆡᄇᆡᆨ셩을잔포ᄒᆞ여학졍이심ᄒᆞ더니밋과만ᄒᆞ여도라올ᄉᆡ모든ᄇᆡᆨ셩이길을막고츰밧하ᄯᅡ지ᄌᆞ며욕ᄒᆞᆷ을마지아니ᄒᆞ니쳥신이붓그리고분히녀겨제고을ᄇᆡᆨ셩이관쟝업슈이녀기ᄂᆞᆫ죄로ᄡᅥ쥬문ᄒᆞ니진종이ᄀᆞᆯᄋᆞ샤ᄃᆡ치민ᄒᆞᄂᆞᆫ졍ᄉᆞᄂᆞᆫ졔일ᄇᆡᆨ셩의인심을어들거시어ᄂᆞᆯ이졔민심이이ᄀᆞᆺᄒᆞ니네졍ᄉᆞᄅᆞᆯ가히알니로다ᄒᆞ시고드ᄃᆡ여폄ᄒᆞ여내치시니라

黃同知

元廣州黃同知夫婦寢病異榻其妻夢吏執公文引數卒持鎖揭帳如擒捕狀曰此非也遂過對榻曰是也夫婦俱驚覺夫曰我必死我招安時多殺無辜今皆至矣逾日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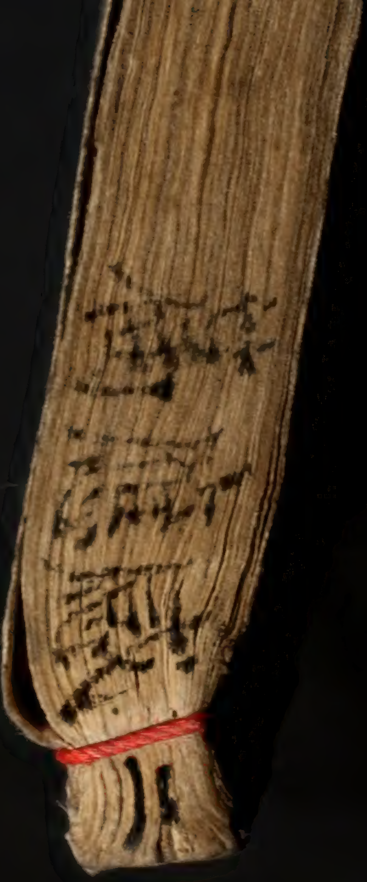
원나라광쥬황동지의부뷔ᄒᆞᆷᄭᅴ병드러각〻상의누엇더니그쳐의ᄭᅮᆷ의ᄒᆞᆫ아젼이공문을가지고두어군ᄉᆞ로더부러칼과슈족ᄌᆞᆷ우ᄂᆞᆫᄌᆞᆷ울쇠ᄅᆞᆯ가지고쟝을들고드러오니맛ᄎᆡ사ᄅᆞᆷ잡ᄇᆞ려ᄒᆞᄂᆞᆫ모양이라이윽이보ᄃᆞ가닐ᄋᆞ되이ᄂᆞᆫ그사ᄅᆞᆷ이아니라ᄒᆞ고져편상으로가며닐ᄋᆞ되이진짓그사ᄅᆞᆷ이로다ᄒᆞᆫ거ᄂᆞᆯ놀나ᄭᅢ여그지아비ᄅᆞᆯ대ᄒᆞ여ᄭᅮᆷ말을닐ᄋᆞᆫᄃᆡ황동지ᄀᆞᆯ오ᄃᆡ내반ᄃᆞ시죽으리로다내젼일초안ᄒᆞᆯ제무죄ᄒᆞᆫ사ᄅᆞᆷ을만히죽엿ᄉᆞ시므로이제모다니르럿다ᄒᆞ더니그이튼날죽으니라

王通判

浙省廣濟軍歲差殷實户充役庫子以司出納有一家侵用官鏹無可爲償府判王某素號殘忍乃拘其妻妾子女於官不足抵完遂以小舟載入西湖令陪客以貲納官鮮于樞傷之作湖邊曲曰湖邊蕩槳誰家女綠慘紅愁羞不語低徊忍淚傷郎船貪得纏頭張歌舞玉壺美酒不須憂魚腹熊蹯棄如土陽臺夢短匆匆去鴛鎖生寒愁日暮安得義士擲千金遂令桑濮歌行露後府判子孫亦世世爲娼矣

절강셩광졔군의ᄒᆡ마다가음열고착실ᄒᆞᆫᄇᆡᆨ셩을갈ᄒᆡ여창고즈를시겨젼지를출납ᄒᆞ게ᄒᆞ더니이ᄯᅢᄒᆞᆫᄇᆡᆨ셩이잇셔창고즈의ᄉᆡᆼ힌지라관젼을출납ᄒᆞ미ᄌᆞ연이범용ᄒᆞ니그쉬이미만코가산이탕진ᄒᆞ여갑흘길이업

ᄂᆞᆫ지라그고을동판왕뫼본ᄃᆡ셩품이잔인ᄒᆞ여힝셰ᄌᆞ
못각박ᄒᆞ더니그ᄇᆡᆨ셩의쳐쳡과ᄯᆞᆯ을잡아관가의
속공ᄒᆞ엿시되오히려그갑시부족ᄒᆞᆫ지라이의젹은비
로ᄡᅫ그녀ᄌᆞ를실어셔호의보니여ᄀᆡᆨ을격고돈을벙으려
관가의ᄃᆞ리게ᄒᆞ니그참혹ᄒᆞᆷ을니로긔록지못ᄒᆞᆯ너
라그후동판의ᄌᆞ손이ᄯᅩᄒᆞᆫᄃᆡ〻로창녀되니라

22) 1.6400 (.745
154
100
88
120
110
10

七厶四钱二卜 本每一元